



The Law and Rightly Dividing The Word Reconsidered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지음

조동훈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The Law and Rightly Dividing The Word Reconsidered

By James W. Knox

© 2012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세대주의 재고찰

| | |
|------------|--|
| 지은이 | James W. Knox |
| 옮긴이 | 조동훈 |
| 펴낸이 | 김영균 |
| 초판발행 | 2012.1.18. |
|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등록번호 | 1999. 6.18. 제17-292호 |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
| 전화 | 0505-856-1997 |
|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 표지그림 | 이장용 jj13b@naver.com |
|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43-5

정가 12,000원

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제1장 율법과 은혜 _11

- (1) 율법이 주어진 이유
- (2)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3) 예수님과 율법
- (4) 신자와 율법
- (5)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제2장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_83

제3장 세대적 진리 재고찰 _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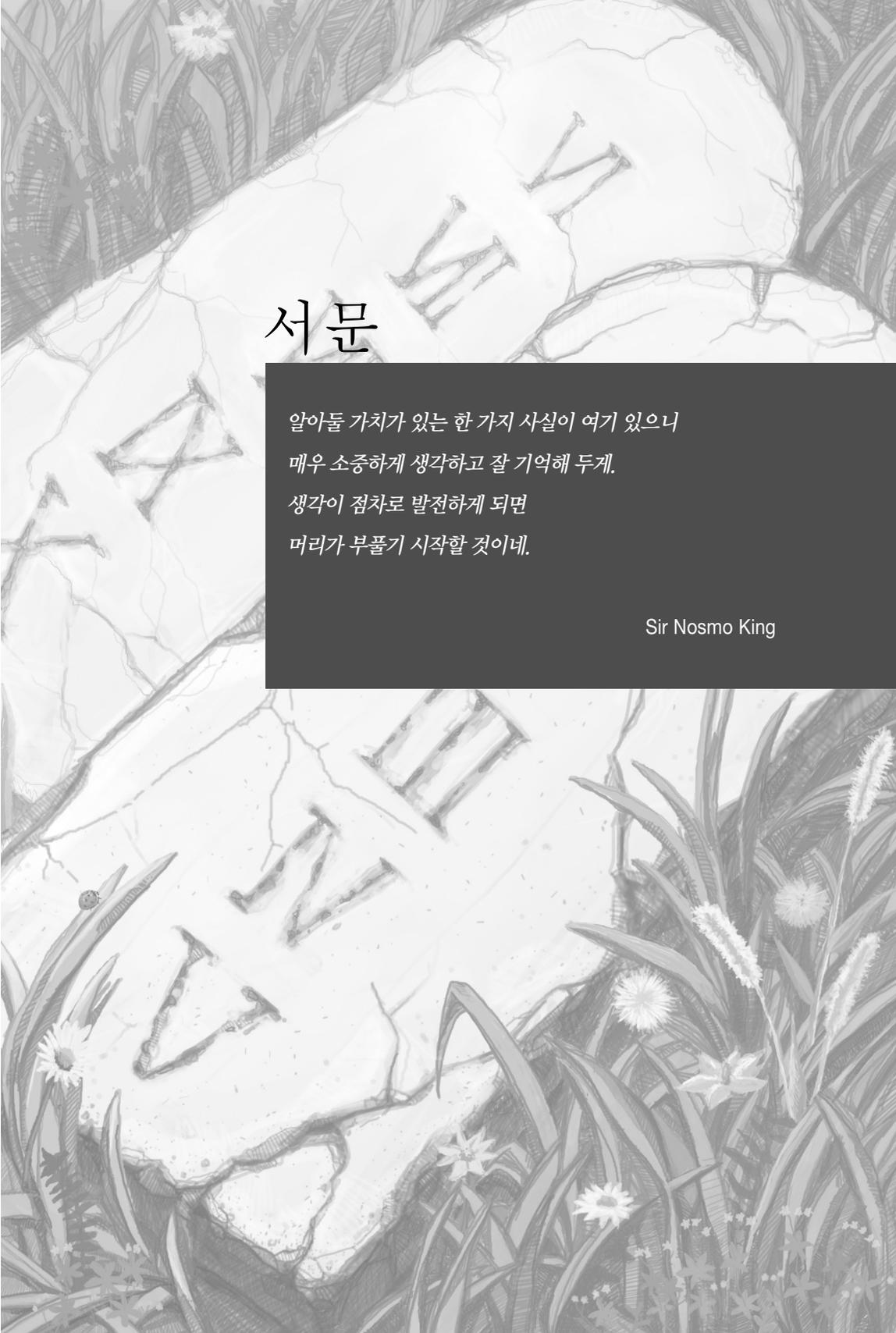
제4장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_153

제5장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_207

제6장 인간의 종류 _223

제7장 지위와 상태 _243

제8장 구약시대의 구원 _265



서문

아이들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여기 있으니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기억해 두게.
생각이 점차로 발전하게 되면
머리가 부풀기 시작할 것이네.

Sir Nosmo King



서 문

디모데후서 2:15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첫째 명령은 **“연구”**하라는 것이다. 연구는 일이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강의설교를 청취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 우리는 성경문맥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네 자신을 인정받은 자로” 연구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험도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공부를 위해 우리 삶의 일정 시간을 포기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인간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경멸과 질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잘 했다”**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한다.

“일꾼” 좋은 공부는 좋은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주님은 게으르거나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근면한 인간을 원하신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적 진리를 물어봤을 경우,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해서 창피를 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이나 간증이 되지 못한 삶을 통해 창피를 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올바르게 공부하여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미리 방지해

야 한다.

“바르게 나누어” 이 말은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말씀을 구분(divisions)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둘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이 존재한다.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셋째, 말씀은 부적절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진리의 말씀”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들의 저서를 공부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 바꾸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상당부분의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것이다.

세대적 진리를 다룬 많은 훌륭한 책들이 존재한다. 지난 세기 성경을 연구한 거의 모든 학생들은 라킨(Clarance Larkin)의 “세대적 진리(Dispensational Truth)”와 기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디한(M.R. Dehaan)의 “율법(The Law)”과 스코필드(C. I. Schofield)의 관주 성경은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덜 알려졌지만 매우 중요한 연구로는 그래함 스크로기(Graham Scroggie)의 저서들이 있다. 사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발견하는 많은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 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또 하나의 책이 필요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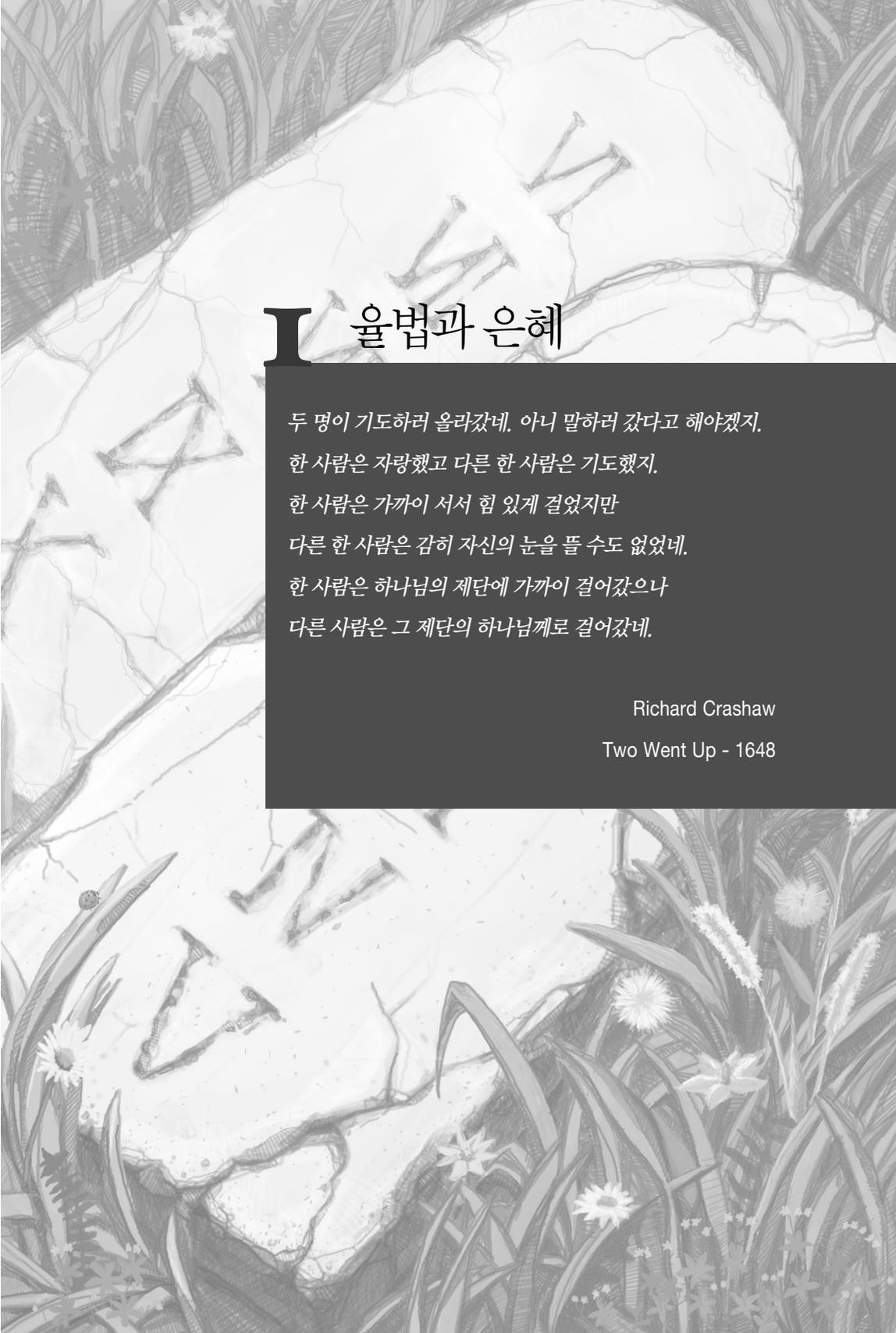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성경 내용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경을 고치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념을 고

수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고자 하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성경을 100%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우리의 취향대로 바꾸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쓴 서적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가 없다. 이 책을 출간하던 시점에서 우리는 약 200만개의 설교 자료와 30만권의 책을 130개 나라에 무료로 보내주었다. 우리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우리 책들을 인세를 받지 않고 출판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책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셋째,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서적들을 통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진리를 올바르게,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성경 연구를 평생 하는 데 있어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 올법과 은혜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갔네, 아니 말하러 갔다고 해야겠지,
한 사람은 자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했지.
한 사람은 가까이 서서 힘 있게 걸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감히 자신의 눈을 뜰 수도 없었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걸어갔으나
다른 사람은 그 제단의 하나님께로 걸어갔네.

Richard Crashaw

Two Went Up - 1648



제1장 율법과 은혜

(1) 율법이 주어진 이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나타내 주는 이 위대한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교리와 그 실천에 있어서 큰 오류를 가져다 준다.

율법은 간부(姦夫)에 대해 돌을 던진다. 그러나 은혜는 그녀를 용서한다. 율법 아래서 어린양은 목자를 위해 죽는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목자가 어린양을 위해서 죽는다. 율법 아래서는 수고를 한 뒤에야 휴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먼저 안식을 얻고 나서 수고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잘못 나누는 예를 들기 위해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1:17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인간은 먼저 율법 아래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히 보여주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존재한다. 둘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문맥을 통해 이해해야만 한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 앞서 있었으나 율법이 은혜와 진리보다 먼저 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창세기 2장에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 930년을 살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판결이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를 찾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구축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17부터 시작해 보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율법에는 그 시작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즉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창세기 15:1을 보자.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아브람(Abram)은 그 어떤 보상 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람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창 15:2-6). 아브람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어떤 율법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어떤 규칙도 존중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아브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은혜로 의를 전가시켜 준 것이다.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상속해 주신 땅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창 15:7).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문제이다.

이 진리는 갈라디아서 3:16-19에서 발견된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Abraham)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 언약 체결 이후 발생한 그 어떠한 일도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자손을 보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갈 3:17).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상속하게 하고 수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430년 뒤에 생겼다. 그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조항들은 변하지 않는다. 은혜가 율법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갈 3:18).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9에 있는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제공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서 이방인들에

게도 빛을 주시고자 했다. 살인, 절도, 강간, 유괴, 간음, 폭력, 이단종교,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면 어떤 축복을 세상에서 받는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율법이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고, 보호하고, 축복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분께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율법을 만드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의 목적이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heaven)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율법을 주신 둘째 이유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4: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각 개인에게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땅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바알브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 날 모두 살아 있느니라.”**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혼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삶이 멸망 당하거나 약속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은 약속한 땅에

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있다.

이것이 신명기 5:29에 나타나는 핵심이다.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민족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다.

사사기 2:19-23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건너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 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놓치고 만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축복은 약속된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되는 벌로 그들은 죽기도 하였으며,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 포로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율법은 언약에 더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여러분은 율법과 언약을 서로 독립된 것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인간이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면했던 문제들(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을 고치거나 양식을 제공해 주었

던 사건)을 상기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나니**”(막 2:27).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셋째 이유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다. 율법 없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무언가가 인간을 지배해야만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을 통치하는 은혜이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율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통치되어야만 한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부여될 수 없다.

로마서 5:1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가인이 아벨을 죽임)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19-20절로 가보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따라서 율법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율법이 오기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죽음과 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들이 존재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 거니와.**”

여기에 율법이 주어진 넷째 이유가 있다. 아브라함 이후 4백 년에 걸쳐 하나님은 죄(sin)와 범법(transgression)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보여주셨다. 어떤 의견이나, 감정 그리고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돌판에 “이것은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지키라.”고 기록하셨다. 이런 명령들을 제정하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10가지의 잘못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10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면, 타락한 인간은 100가지의 잘못을 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47장에 걸쳐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인간이 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인들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지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은 죄를 극대화시킨다.

로마서 7:7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패하고 상당히 심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술 취한 노아, 거짓말 했던 아브라함, 비웃었던 사라, 교활했던 야곱, 간음했던 다윗 등등. 율법이 있기 전과 후에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율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율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율법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1:8-11을 살펴보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따라서 율법은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물론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야고보서 1:2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비교할 기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진리를 거부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혹은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율법이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율법은 다른 이방민족 혹은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 또한 신약시대 교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시편 147:19-20을 보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명기 4:5-8에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

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존재했고 지금도 그렇다. 다른 민족들은 그와 같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3:1-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11-1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것을 다른 이방민족에게 주지 않으셨다.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엡 2:13-14).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장벽이 되었다.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5-16).

유대인만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민족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원했던 민족도 다름 아닌 유대민족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법을 교묘히 이용해야만 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유대인들이 이방민족 건물에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빌라도와 바리새인들은 그들 사이에 장벽이 놓여있었기 때문에 공조할 수 없었다. 한쪽(이방인)은 인간의 법을 소유하고 다른 한쪽(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연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연합될 수 있었다.

에베소서 2:17-2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시나니.” 유대인과 이방인은 꼭 맞게 하나로 이루어지고(21절) 함께 세워지

계(22절) 된다. 이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진리를 로마서 9:3-5에서도 볼 수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중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율법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누가 율법을 받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이다. 누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누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다른 민족들이다.

이런 문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A.D 45년에 결말을 보았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신약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구약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려고 모였다. 사도행전 15:1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물론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였으며 모세의 법률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도행전 15:8-10을 살펴보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인간이 율법의 멩에를 짊어지기는 너무 힘겹다는 사실을 그때 모인 사람

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1:30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말씀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 15:11)

이 결론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모든 교회에 전달됐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어떤 성도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들은 혼의 구원과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치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율법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다섯째 목적에 이르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불결하거나 사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이다. 신명기 5:22-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 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이 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가운데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바가 다 옳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영광이 산을 흔들었고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높은 영광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들과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고 인간들은 그분을 두려워했다. 여러분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라는 문구를 되새겨 본다. 인간들은 완벽한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체험하였다.

현대 미국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에 동의하기에 앞서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사는 데 동의하였다.

모세시대 이방인들의 예법과 생활방식을 율법에서 요구하는 매우 높은 삶의 기준과 비교해 본다면, 이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 의로움, 긍휼, 지혜와 예언 등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이제껏 존재했던 그 어떤 기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매우 선명한 방법으로 단지 몇 개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법적인 규정보다 훨씬 뛰어난 삶의 기준들이 돌판 안에 새겨져 있다.

율법을 주신 여섯째 이유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갈 3:24)

율법이 가르치는 것에 유의하라. 율법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첫째 날 명령을 지키려 시작하지만 이내 실패한다. 다음날 하나님을 모든 혼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지만 또 실패하게 된다. 셋째 날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시도해 보지만 역시 실패하게 된다. 이런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계속 겪게 된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실패했던 인생의 모든 기록들을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합격의 점수를 부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율법이 요구했으나 실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구원자 없이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참한지를 예수님 앞에서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

율법을 소유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데 만족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구원자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매우 교만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된다고 상상하였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셨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롬 10:1-2)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으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3)

훈육 교사가 그들을 가르친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은

의롭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그러나 그들은 대답했다. “싫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지키도록 하겠다.”

여러분 대부분이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와 같이 않은가? 그들은 자신이 장로교인, 감리교인, 은사주의자, 혹은 침례교인이라고 자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념이 너무 신실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이런 답변들은 모두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들은 율법이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결론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율법이 주어진 일곱째 이유는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0:1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늘 위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땅에서는 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림자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왕좌와 땅 위에 있는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하늘 영광의 빛이 그분에게 비추이어 그분의 그림자가 율법이 존재하는 땅 위에 내려오게 된다.

구약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예표와 모형들을 살펴 보자. 선한 목자로서의 아벨, 어두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인 방주, 이삭의 기적적 탄생과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는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유월절 양, 늦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절들(feast days), 민수기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와 두 마리의 새들, 속죄양과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구세주에 대한 어렴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그러나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그 그림자에 안주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 상징에 집착했고 진리를 거부했다. 그들은 예표에 집착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흥미롭게도 신약성경은 율법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예표와 비유를 사용한다. 우리는 아래 6가지 비유를 서신서에서 발견하게 된다.

첫째, 율법은 거울에 비유된다. 야고보서 1:23-25에서 말씀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내용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회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제한 교회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 성경은 일종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거울이 언급됨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출애굽기 38:1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가 번제 헌물 제단을 만들되...”**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인간들은 물두멍에 와서 씻고 정결케 한 후에 제단 앞에 나와

번제 헌물을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거울을 사용하여 옷대야를 만들도록 하셨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정결한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는 깨끗한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되어야 할 모습대로 되있는가?

둘째, 율법은 속박을 가져오는 멍에와 매우 흡사하다. 사도행전 15:10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한 사람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소는 한길로 가고 둘째 소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리의 소를 멍에로 묶어서 두 마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

율법은 멍에였다. 율법은 인간을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은 정부의 권위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디모데전서 1:8-10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라.”

선한 율법은 악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준다. 율법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지라도 그들을 억제할 수는 있다. 이런 진리가 로마서 7:1-25에 언급되어 있다. 율법은 인간의 삶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율법은 인간의 삶이 보다 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쪽에는 경찰, 판사 그리고 교도관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흠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흠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지라도 명어를 사용해서 흠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통제할 수는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인간들을 율법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권력이라고 하는 명어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생각해 보자. 인간은 모든 율법을 미친 듯이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자. 그들의 행동은 보이지는 않지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는 명어를 통해서 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1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다시는 속박의 명어를 메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것은 속박의 명어이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유지할 수는 있다.

셋째, 율법은 가정교사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1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신은 모든 삶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어린 아이 시절에는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여러분은 종(servants)처럼 땅을 파고 수확

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2를 보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따라서 율법은 가정교사이며 그 목적은 학생을 통제하는 데 있다. 즉,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인간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율법의 존재 목적이 있다.

미국의 학교와 가정이 통제와 규율을 포기하면서부터 미국사회는 혼돈과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부모들이 너무 규범적일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우리 어린이들은 규칙, 규제 그리고 법규 없이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그리고 입고 싶은 것을 입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을 통제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해 야단치거나 규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생각하지 않고 진화된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며 지성이다.

현재 이런 철학이 미국 내 거의 모든 교회에 만연해 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는 그런 행태는 마치 4살 된 어린이가 엄마를 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슬프게도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통제되어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무엘상 3:13에서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녀로

성장할지, 혹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할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억제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엘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것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의 넷째와 다섯째 모형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율법은 돌판 위에 쓰인 작은 편지이자 베일에 감춰진 영광과 같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6-8절)

우리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돌판 자체는 생명이 없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새로운 탄생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돌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돌판을 기초로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돌판 위에 설 수도 있고 그 뒤에 숨을 수도 있다. 그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생명을 만드는 일이다. 진화론에 속은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신약성경과 대비를 이룬다. 그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

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고후 3:13-14)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았으나 그림자 뒤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서 이 베일을 벗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적을 통해 입증하셨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였고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deity)을 증명하려고 하셨다. 또한 맹인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오류 없이 그분이 “나으신 분(I AM)”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설명하셨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들은 율법에 얽매었고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야를 바라보지 못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자. 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는 율법에 따라 금식을 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를 이사야 53장에 근거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의 눈을 가리는 베일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가려졌을 것이다. 그가 믿기로 한 그 순간에 베일이 제거된 것이다.

다소 사람 사울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적으로 보았으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베일이 벗겨졌던 수많은 증거가 있다.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행 9:20)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행 17:2)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었던 율법만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율법은 이미 죽은 옛 남편에 비유된다. 한 설교자가 로마서 7:1-3을 인용하면서, 첫째 남편이 죽은 날 둘째 남편과 결혼한 한 여인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율법의 여섯째 모사이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남편의 죽음과 아내의 재혼 사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남편의 죽음 직후 재혼은 매우 이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여인이 과부가 된 순간, 그녀는 첫째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법률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 담긴 생각이 신자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롬 7:4)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과 이 두 관계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즉시로 시내 산에서 율법

과 혼인하였다. 율법이라는 첫째 남편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 남편은 혹독했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인이었다. 남편의 규칙은 완벽했다. 그러나 불쌍한 아내는 그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었다. 만일 아내가 한 가지 점에서 실패하면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유죄인 것이다. 이 남편은 완벽한 복종을 요구했다. 아내가 실패하면 즉시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아무리 그녀가 노력해도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그 아내는 이 모든 조건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남편에 복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아내는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의 교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관계에서 아이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다. 율법은 죄인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불쌍하고 힘없는 아내는 자신이 결코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했다. 아비가일과 마찬가지로 아내는 더 좋은 남자가 오기를 소망하며 복종과 정조를 지키며 살아야만 했다.

이 예화는 성경의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 입증된다. 두 명의 남편과 사는 여자는 간부이다. 그녀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반드시 그녀의 첫째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그러나 행복한 소식이 전해온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롬 7:4)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전 관계는 끝이 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묶여 있다고 (일부라 할지라도) 가르치면 그는 이런 확실하고 선명한 성경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율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묘사되고 있다.

거울

멍에

교사

돌판에 새긴 글자

베일

죽은 옛 남편

(2)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한다고 배웠다. 그러면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인가?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로마서 7:1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법규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음은 매우 자명하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7:13). 율법 그 자체에는 죄가 없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바로 죄이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조명해주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죄의 실체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는 마당에서 나오는 한 소리를 듣게 된다. 나는 밖에 나오자마자 비명을 지른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머리가 상처를 입었고 땅 위에 누워있다는 것이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또 다른 소음을 듣고 나와서 다시 비명을 지르게 된다. 반대쪽 머리가 상처를 입었고 또 다시 마당에 쓰러지게 되었다. 무엇인가가 내 머리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불을 켜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조명등을 켜고 나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조명등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다. 단지 조명등은 그 불빛을 통해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줄 뿐이다.

이처럼 인간을 죽이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그 사실을 인간에게 폭로한다. 율법은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롬 7:14-16).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다른 측면을 말해보자. 율법은 영적이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이 육신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단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간증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해 보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받을 존재가 다름 아닌 자신들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롬 7:17-21).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어떤 확정된 원칙이다.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롬 7:21-22).

다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고 꾸준히 순종하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1:8을 살펴보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올바른 사용을 통해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정직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적절한 율법의 사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3) 예수님과 율법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딤후 3:16).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또한 알고 있다(마1장, 눅3장).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롬1:1-3).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었다. 갈라디아서 4: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셨으나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선자도 아니셨으며 자신의 권능을 남용하지도 않으셨다. 그분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그 율법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인생 전체에서 매 순간 율법을 한 조목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킨 첫 인간이셨다. 그분은 율법을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 8:46)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 없는 자신의 완벽함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8:29)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완벽한 거룩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마 17:5)

그분은 율법의 사역자였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회복시켜주는 율법의 사역자였다.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을 부패시키고 변개시켰다. 그들은 율법의 효력을 약화시켰고 심지어 율법에 수정을 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첨가시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지위를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셨다.

누가복음 10:25-29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 하고자 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인용한 율법의 권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그 권위를 거부하

고자 했으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율법은 지켜져야만 한다.

성경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겼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어기도록 인도했다고 말씀한다. 그들은 율법이 진리라는 점을 부인할 만큼 담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더 가치를 부여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마 5:17,19).

율법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 권위를 호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상기해 보자.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 하라고 말씀하신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마 5:21-24).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재확립시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의 절대성과 문자 그대로의 올바른 해석을 다시 확립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자구를 지키지 않는 모든 일반시민과 종교지도자들을 저주하셨다.

로마서 15:8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यो,”**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인간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제국과 자신들의 부패한 제사장으로부터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줄 예수님을 기대하며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적 희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안전과 평화를 향유 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상태에서는 언약의 약속들은 성취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속박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제국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그들은 의로운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불의한 로마제국의 지배 아래 살기를 택했다.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못하노라.”**(요 18:38, 19:4,6) 그러나 그들은 외쳤다. **“우리에게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요 19:15)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사역자였다. 예수님께서서는 할례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언약들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 언약들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려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셨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5:8에 발견된다.

그분은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를 성취하셨다

히브리서 9:11-12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를 성취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제단 위에 뿌려진 염소와 송아지의 모든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 9:13-14).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세로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와 같은 희생제물은 외적인 의로움을 표시해 준다. 그러나 내적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요구된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를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히 9:24)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성경 구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희생제물과 기구들(촛불, 빵, 식탁 등)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인 성막에 나오는 행위가 하늘나라로 가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의 사역을 끝마쳤을 때, 제사장과 그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그들이 시작했던 장소에서 조금도 하늘나라에 가깝게 가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통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장 천한 죄인조차도 가장 위대한 제사장보다 높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율법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희생제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 희생제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이다.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으나 그녀의 애인이 전쟁에 나가고 애인의 사진 하나만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수많은 시간을 그녀는 자신의 애인이 돌아와서 결혼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사진을 매일 밤 본다고 가정하자.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애인이 돌아왔다. 모든 영광을 가지고, 떠날 때보다 더 멋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애인의 과거 사진 속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결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보다는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를 붙들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은 이 예회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보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 여자의 집이 불타 애인의 사진도 재로 사라졌다고 가정하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실제 애인이 아닌 사진 속의 애인을 간직하였고 그 애인은 사진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유대인

들은 자신들의 성전, 제사장직분, 도시와 제단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호세아 3: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저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메시아의 형상으로 바꿨고 그 형상들은 사라졌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희생 제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모습들에 관한 유한한 많은 책들이 서점에 있다. 이것들을 읽고 음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표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위대하지 않은가?

그분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율법의 모든 부분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이 저주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배웠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완벽히 지불해 주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3:13-14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던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

첫째, 어떤 죄인도 완전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로 인해 마치 우리가 모든 의로움의 조건들을 충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한없는 은혜와 긍

홀을 베풀어 주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그분을 믿는 이방인들도 미래에 회복된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향유할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통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던 종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종들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런 새로운 지위와 교제는 정말 놀랍지 않은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 가혹함 그리고 속박을 의미한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탈출하기를 바라는 종의 신분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교제 그리고 인간이 오랫동안 그 마음 속에 갈망했던 가장 친근한 교제를 생각나게 한다. 갈라디아서 4:1-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많은 약속을 누릴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세기 동안에 그것들을 향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갈보리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마치 그들에게 아무 약속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갈 4:3) 에베소서 2장과 4장은 마귀와 그의 제도에 속박되었던 이방

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영원한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전부가 아니다. 죄들의 용서함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으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 4:6) 이것은 시나산에서 받은 규범과 규율 그리고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자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더 나은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다

옛 언약은 항상 효력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이 회복되면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 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더 부요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고(로마서 2장), 그분의 권능을 이해하는 지각과(로마서 1장) 빛을 주셨다(요한복음 1장). 이스라엘 민족은 보다 좋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율법을 통해 매우 자세히 인도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와 직접 교제하신다는 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도록 하셨다.

이런 두 가지 진리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여호와(Jehovah)와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8:6-13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우리는 이 엄청난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만 한다.

이 언약은 전의 것보다 뛰어나다. 또한 예전 언약은 부패하고 사라질 시점에 와 있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 성경구절에서 언급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율법에 관해 배운 것들을 기억해 보자.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불복종의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았다.

왕국시대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믿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누리지 못한 몇 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베일은 벗겨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위의 구절은 엄청난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를 포함한 어떤 인간도 누리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이다.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도 누리보지 못했던 완벽한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더 위대한 법을 제정하셨다

갈라디아서 6: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려 오신 게 아니라 성취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의 내용을 영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율법이 타락한 인간의 복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율법이 얼마나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에서 가장 지면이 넓은 장을 할애해서 율법의 계명과 법규를 찬양하고 계신다.

첫째,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 동의하셨다. 다음의 예들을 자세히 살펴 보자.

마태복음 22:37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4:24도 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다른 경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5:34-3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불릴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과 대화하고자 아니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루에도 수백 번 “제기랄(Oh my God)” 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저주에 대해 화가 나실지 생각해 보라.

마태복음 15:4을 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9:19을 보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7:10을 보자.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마태복음 5:21을 보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19장 9절과 18절도 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 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율법의 저자께서 자신의 법규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보다 더 위대한 법을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규범의 영역에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율법의 본질을 옮기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그 안에 있는 헌신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5:19에서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34-37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당성을 언급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통제 아래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점은 누가복음 13:14-16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회당의 치리

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여섯 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그 날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예를 기억해 보자. 각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우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고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화내지 말라고 하셨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범주를 맹세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셨다.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마 5:33-35)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간음의 행위와 그 의도도 죄임을 명백히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예수님은 이처럼 밖으로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셨다. 예수님

은 사람들의 외적 행위를 뛰어 넘어 그 마음속까지 바라보신다. 외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욕구나 갈망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우리가 미워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를 조심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마 5:43-44)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성경구절을 기억해 보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만을 소유한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없는 율법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의도를 명백히 하고자 하셨다.

신약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요일 5:3)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통제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대답한다. “내가 왜 그렇게 까지 해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4) 신자와 율법

신약교회 시대에서 거듭난 신자와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는 매우 논쟁이 심한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는 자유주의적 교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들은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율법에 기초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확한 시대구분과 세대주의를 신봉한다는 근본주의자들도 율법을 이용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를 위협하고 심지어 그 율법을 지역 교회를 통치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기적이며 불완전한 사역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교리적 문제점이 발견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년왕국 기간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며,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거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된 인간의 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철장으로 심판 받는다고 가르치거나,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혹은 율법의 일부가 교회시대에도 적용된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깔려있는 기본구조는 모두 같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노력이 실패함으로써 나온 일종의 좌절감의 표출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성경을 변개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도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다. 진리가 영적인 열매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

람을 아무리 헐박해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죄를 짓기를 원하면 죄를 지을 것이다. 만일 그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간증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들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교리와 저주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잠 26:2)

여러분은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위협할 수 있으나, 결코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예수님의 심판석으로 위협할 수 있으나, 나의 모든 죄는 그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왕좌에는 나를 위한 변호인이 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으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내가 율법의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율법아래 있지 않았고 허물며 지금 구원받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물론 세상에는 잘못된 교리의 반복학습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열정은 있으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도시대에 논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사람이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경우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이나 구절

들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최종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는 것은 성경에 쓰인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이에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행 15:1-4)

예루살렘에 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다. 만일 율법이 이방인들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우월적 지위는 끝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리가 계시되는 것을 방해했던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행 15:5-6)

독자 여러분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할 것이다.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행 15:7-9)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았을 때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당시 모두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부터 시작된 교리가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멩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 15:10-11)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오래 전에 확고한 결론이 내려졌던 이 문제가 20세기가 지난 현재에서도 논쟁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구절은 정말 강력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례가 나와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속박을 교회에 부가하려는 시도는, 예수님께서로부터 권위를 위탁 받은 사람들이 거부해야만 한다.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잠잠하며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라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15:12-13).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행 15:19)

야고보도 동의했고 베드로도 동의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내려진 결론에 동의하였고 이것이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즉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행 15:20-21)

초대 교회는 율법의 문제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연합한 양심을 소유한 교회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사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다. 평안할지이다, 하였더라.”(행 15:22-29)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첫째, 성령님께서서는 교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다.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둘째, 신자들을 율법 아래 놓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혼을 파멸시키는 행위로 고소당했다.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교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구원 교리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다.¹

디모데전서 1:4-6의 경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charity)으로 가득한 삶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훈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명령들을 하나씩 조사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율법 자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가 사랑에 기초하기보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헛된 결과만을 초래한다.

디모데전서 1:7은 개인들과 모임들로부터 사랑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

¹ 율법이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로마서 6:14-15를 통해서 그 잘못이 밝혀진다. 율법이 결코 어떤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또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으며 율법의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신약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왜 존재했을까? 그들의 의도는 분명 잘못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들을 위해 존재했던 율법 아래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가 건전한 신약 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령님은 매우 선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신다. 구약시대 율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신약시대 성도에게 접목하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구절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대인들의 명절들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들을 저술하고 그런 내용의 전도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왜 안식일을 주장하며 그날에 모이려고 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구약시대 율법의 전부 혹은 일부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4-7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8-9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0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5:2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자신들에게 전가된 주 예수님의 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 로마서 10:3-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율법과 나의 관계는 끝이 났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인간들은 교회에 율법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구원받은 선한 신자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거나 혹은 다른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목사님께 의문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라처럼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새우를 먹으면 젊을 때 죽을 것이다.” 이것 또한 율법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속박으로 이끄는 사람의 말에 나는 현혹되거나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율법은 훈육선생(schoolmaster)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구절은 학교에서 졸업하고 떠날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23-25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이 문장은 과거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간혀 있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더 이상 학교 건물에 갇혀있지 않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was)” 과거시제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after),”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런 명백한 설명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그런 난해한 부분이 아니다.

로마서 2:12-14를 살펴보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들이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명과 사회에 진리에 기초

한 법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셨고 그 법의 원칙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일치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이기에 믿는 성도가 되어서도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데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키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다음으로 로마서 3:19을 살펴보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구절은 율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중지부를 찍는다(아래를 참조하라). 성령님께서서는 율법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체계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구절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율법의 그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희생제물도 바치지 않는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어야 하며 내 소득의 얼마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지를 규정하는 그 어떤 법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야(Jah)”라고 경배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한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어떤 잘못된 교리라 하더라도 나로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없다.

로마서 6:14-15을 보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은 만일 사람들을 율법의 통제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에서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님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은혜가 율법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진리의 내용이 로마서 7:7-13에서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사전과 같은 기능을 한다. 죄를 설명하고 규정한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바울의 증거는 내가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더욱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율법은 사람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읽는 행위들은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한다. 율법은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보여 줄 뿐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기록하고 명령도 기록하며 의롭고 선 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다. 이 내용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가는 데 율법이 적절한 규범을 제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성경구절의 전체적인 목적은 죄를 통해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삶을 믿도록 하는데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두고 다시 저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자.

고린도전서 15:56-57을 살펴보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을 어기는 죄가 당신을 죽일 만큼 큰 죄인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만큼 강력하신 분이신가? 그렇다. 율법에 의해 죽고 예수님에 의해 일으켜진 내가 왜 율법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격하시키고 자신의 노력을 높이려는 인간의 갈망을 추구하는 그 어떤 거짓 교리에서도 벗어나야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전체는 신약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다. 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다시 한 번 말하고 있다. 율법은 의로움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온다. 신약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는 성령님이 진정 한 의를 성취하심을 알 수 있다.

11절을 보자.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대...(율법, 사라짐) 남아 있는 것에는...(하나님의 전가된 의)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14절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 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이 율법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당신이 율

법의 계명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나는 모세의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규범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에 있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그분만이 영원한 삶에 필요한 의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그분만이 이 지상의 삶에 필요한 의를 가져오실 수 있다.

골로새서 2:13-17에서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이방인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당신은 죽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고 더 이상 죽지 않으며)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께서 율법의 모든 길을 제거하심으로 나와 구원자 사이에 율법이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 16절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음식법) 또 거룩한 날(유대인의 법적인 금식일)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일주일 마다 있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년 그리고 7년에 한번 있는 안식년)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통해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과 같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인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음식법(dietary laws)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거룩한 날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명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은 모든 길에서 제거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면을 얻었네.
율법에 저주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은혜로 단번에 구속하셨네.

우리는 그 어떤 저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네.
나에게 오라, 그분의 달콤한 부르심을 들어보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런 위치인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된 구원을 얻게 되었네.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이번 장을 히브리서 7:19로 마치려고 한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라. 모세의 속박과 규범이 아닌 은혜의 자유를 전하라.

* 주의(Note): 율법에 집착하려는 간절한 시도의 일환으로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율법을 여러 분야(sections) 혹은 부분(divisions)으로 나누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예들을 나열할 수 없으나, 아래 한 가

지 예를 보면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판단한다.

주님의 율법은 십계명이고 모세의 율법은 안수의식, 희생제물, 금식일과 음식법 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이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만이 십자가에서 성취됐다고 가르친다.

이런 오류를 잠재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용어들(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율법)을 성령님께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2:22-24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을 드리려 함이더라.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이 성경구절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을 바치려 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조건은 십계명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눅 2:39)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규례적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율법 아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성경구절들은 그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 6:14).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롬 7:6)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며(롬 8:2)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갈 2:19). 주님을 찬양한다.

(5)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이번 장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성경적 분석의 초점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더욱이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3:10-12을 살펴보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인간의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규정된 요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외에 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표적에 맞추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어느 인간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대비로 에베소서 2:8-9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

습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 남성이 천 가지 율법 가운데 다섯 개를 지켰으면 그는 정죄를 받는다. 한 여성이 천 가지 율법 가운데 오백 개를 지켰으면 그 여자도 정죄를 받는다. 다른 한 남성이 천 가지 율법 가운데 987개를 지켰어도 그는 정죄를 받는다. 성경은 여러분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 정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은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율법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히브리서 7:11-19의 말씀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면 과거에도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인간에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전 제사장이 봉헌한 희생제물과 그들이 가르쳤던 진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

다.” 따라서 구원은 명백히 율법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껏 배운 모든 내용들을 입증해주고 있다. 율법은 육신적 계명과 관련이 있다.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차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육신적인 인간(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을 의미함)을 지배하는 계명이 한 편에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레위계통, 율법 그리고 계명들은 육신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두 육신적인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약점이며 이런 점에서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THE WAY)이다. 예수님은 현재 혹은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길이다. 예수님 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을 받았거나 교회 휴거 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이 율법에 관해 말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 구절은 과거시제로 되어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결코 어떤 한 인간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의롭게 혹은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살펴보았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율법은 언약에 더하여졌으며 그것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닌 혼에 대해서 논의함을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율법을 무효로 함을 발견하게 된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언약 아래 있었다. 은혜가 주어진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점이 바로 이중의 축복인 것이다.

율법은 당신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1-4은 선언한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율법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 아래서 드린 희생물들이 이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앞 성경구절에 대해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구절이 주장하는 요지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구약시대 희생물들을 통해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 과거는 물론 미래에서도 불가능하다.

희생물들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매년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희생물로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들이 인간 혼의 필요를 충족시켰다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께 그분의 공훈과 은혜를 부르짖으며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희생물이 죄를 제거할 것이라 믿고 동물을 바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와서 죄인의 신분으로 떠났다. 주님을 경배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물을 바친 인간도 소망을 가지고 왔으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떠났다. 다른 어떤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의롭게 할 수 없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한 인간이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의롭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사도행전 13:38-39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율법에는 그 어떤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성경구절의 문맥을 주의해야 한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16절) 그들의 역사를(17절) 말하였고 사울에서 다윗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23절)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24절) 선포하였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의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이렇게 명백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은 칭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행 13:16-17, 23-24).

율법은 당신에게 공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구원의 핵심적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제시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없었으므로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다. 사도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존재하는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전도서나 레위기 혹은 이사야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구약시대나 혹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뒤져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 교회에 주어진 완벽한 진리의 조명을 살펴봐야만 한다.

로마서 3:20-28에서 다음 설명들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나니”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분의 눈앞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의롭다고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때 율법의 역할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율법은 당신이 율법을 지키므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율법은 인간의 죄된 상태를 보여주나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 대언자들은 율법을 거스른 인간들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도록 요청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계명의 순수함에 있다. 그분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을 2000년 동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갈라디아서 2:21은 인간이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義)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인간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죽음은 목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점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거듭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은 당신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21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

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모든 계명들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삶의 방식, 사랑 하는 법, 죽음, 임금, 전쟁, 평화를 지키는 법, 사업, 거래, 안전, 배수, 농업 등에 대한 엄청난 법규를 발견하게 된다. 몇 페이지 속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세 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행하면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계명을 찾거나 혹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계명을 찾고자 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계명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에는 인간이 한 가지 법규나 수 천 가지의 법규를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이 없다.

율법은 삶을 지배하나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

율법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히브리서 9:9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자.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안수한 희생을 바치고 있다. 그는 지성소에 일 년에 한번 들어간다.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그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다시 나오면 환호한다. 햇빛에 반짝이는 대제사장 의복 위에 있는 보석을 바라보자. 정말 장관이 아닌가! 그러나 그날 밤 여러분이 깨어서 낮에 목격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날 당신의 죄를 제거해준 그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율법 아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장소에서 봉헌한 희생제물은 죄인의 마음에 평화를 나누어 주지 못한다.

왜 평화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갈3:10). 저주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 누구도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아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야고보서 2:10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여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사회나 가족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에 비해 더 심할 수 있다. 교회 생활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볼 때, 어떤 죄들의 결과는 다른 죄들에 비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은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율법 아래서는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라디아서 2:16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11에서 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용서와 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한 성경구절이 있을 것이다.² 구약의 율법을 올바르게 살펴보지 못하면 죄를 위한 희생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죄 헌물을 통해서 특정한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인간이 받게 되는 구원과는 다른 것이다.

죄 헌물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 4:1-6:7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사장을 위한(4:1-12), 전체 회중을 위한(4:13-21), 지도자를 위한(4:22-26) 그리고 보통 사람들(4:27-35)을 위한 희생물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죄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 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it) 용서받으리라.”(레 4:20)³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 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it) 용서받으리라.”(레 4:26)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it) 용서받으리라.”(레 4:31)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가(it) 용서받으리라.”(레 4:35)

² 이번 장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Richard Jackson 형제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³ 영어 King James Bible에서는 그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로 지시대명사 it 을 사용하였다.-역주

명백히 용서받은 것은 희생물이 제공된 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것이다. 희생헌물을 드린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시적 결과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물을 드린 것이다. 레위기 5: 10, 13, 16, 18, 6:7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죄 헌물로 인해 한 가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레위기 19:22에서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로 인해 용서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경우는 한 남편과 정혼한 노예 여종과 육체적으로 잠자리를 한 사람이 범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것이다.

죄 헌물이 봉헌된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타난 모든 경우에서 그 사람은 죄를 무의식적으로 저질렀거나 혹은 그의 범법이 초기에는 인지되지 못했었다.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자신이 유죄임을 알고 나서 희생제물이 요구되었다.

레위기 6장에서 남의 재산을 잘못 취한 사람의 경우 원래 주인에게 20%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의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무슨 일에서 범법하였든지 다 용서받으리라.”**(레 6:7)

물론 죄 헌물로 용서 받지 못하는 죄의 경우도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면(히10:4), 이런 희생물들은 위에서 열거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인간이 저지른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희생 제물로 인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은 명백히 하고 있는데 과연 죄 헌물로 규정된 속죄(atonement)와 용서(forgiveness)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민법(civil code)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주어졌으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율법은

국가나 통치자 혹은 하나님 자신이 명령한 것들에 대해 범죄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 율법에서 용서받았을 경우에는 그는 심판으로부터 면죄를 받게 된다. 국가의 체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죄가 무의식으로 저질러졌을 경우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레위기 5:17-19을 다시 살펴보자.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에서 흠 없는 숫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 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 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참으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였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한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교제가 회복되고 어떤 형벌도 그에게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것은 모세가 민수기 14:19에서 기도할 때 사용했던 용서받았다 (forgiven)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이집트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명백히 이스라엘 민족 개인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주셨으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모세가 구한 **“용서(pardon)”**는 그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이나 그들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에 따**

라” 간청한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부여하셨고(민 14:20)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만 마땅한 심판을 면제시켜주셨다.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민 14:12)) 그러나 동시에 반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민14:21-23). 그들은 용서받은 것이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는 대비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가는 우리 성적표에는 적혀있지 않다.

의롭게 하다 혹은 이 단어의 동의어가 구약에서 23번 등장하고 있다. 이 단어는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그로 인해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의미로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규정한 희생제물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제공 할 수 있는 그 어떤 희생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한 것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6-17) 구약시대에도 죄인에게 구원은 가능하였으나 그것은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가능했다.

그럼 속죄일(Day of Atonement)에는 어떤가? 그날에 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자”(레 16:11)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제사장은 염소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죄 헌물로 바쳤고 그 피를 성소에 뿌렸다.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속에 머무는 회

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레 16:16) 그리고 나서 제단 밖으로 나가서 수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레 16:19)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 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레 16:20-22)

24절에서 아론은 그의 민족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 이것은 “번제 헌물로 숫양 한 마리를”(5절) 드린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죄 헌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태울 것이요.”(레 16:24-25)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영원한 법규가 되었다. “그 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레 16:30)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레 16:33-34)

이런 희생 제물들과 피 뿌림으로 인한 속죄는 정결케함과 화해를 위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의 죄와 사악함이 그들과 그들이 경배하는 장소를 더럽혔다는 것이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 자신이 경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그들 혼들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축복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

든 것로부터 이미 의롭게 된 거듭난 신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용서와 칭의를 다루는 수백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나열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 진리에 대해 아래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도록 권고한다.

1.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경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의미한다.

2.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할 수 있고 용서하도록 교회에서 종종 가르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특정한 죄에 대한 보복을 피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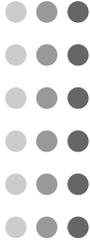


2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어리석은 사람의 피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들로 채우는 것이다.

Herbert Spencer

from *State Tampering with Money Banks*



제2장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누는 데 있어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31-3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알게 된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또한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을 분류하는 데 그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이 세 그룹은 완벽히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 세 그룹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피를 물려받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인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탄생 즉 둘째 탄생을 통해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거듭난 유대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거듭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육신적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새로운 신분(identity)을 얻게 되었다. 인간은 2차적 영적 출생보다 자신들의 육체적 1차 출생에 보다 집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과 잘못된 교리들이 발생했다.

신명기 28:64을 보자.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민수기 23:9도 살펴보자.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민족대로 나눌 때 유대인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구별되었다.

신명기 33:28에서는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구별된 한 민족이다. 또한 출애굽기 33:16을 살펴보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이이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별된 민족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화되어 살려고 시도할 때마다 큰 재앙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 16:18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 보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현재시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미래시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가 존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었다. 또한 교회는 침례인 요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요한이 죽었고 교회의 건물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기에 앞서 이교도, 민족들 혹은

섬들이라 불리는 이방인들이 존재했다. 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위에 한 민족을 세우셨다.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만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존재했지만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시적인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가교가 아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에베소서 1-5장에 걸쳐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에베소서 3:1-10을 살펴보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간헐한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속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노아, 다윗 혹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언약 아래서는 그렇지 않다. 에베소서 1의 말씀은 율법에서 발견되는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몸 안에 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존재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요구들과는 대치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현재, 같은 약속을 상속받는 참여자가 되었다. 구약과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는 배제된 민족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라 불리는 한 몸 안에 연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비되는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구절을 통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 또한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 또한 교회가 아님을 그리고 이방인도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명백히 발견하게 된다. 이 세 그룹은 분리된 존재인 것이다.

로마서 9:3-5을 살펴보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누구를 의미하는가?), 내 친족(누구를 의미하는가?)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앞에서 질문한 답이다)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이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도 다른 이방민족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것들은 육신을 따라서 바울의 형제 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에베소서 2:11-12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

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육체를 따라서 오직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다. 바로 유대민족인 것이다. 이방 민족은 언약과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었다.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은 같지 않다. 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에베소서 1:22-23을 보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대인들은 언약과 약속을 소유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많은 축복을 그것들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향유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신격(Godhead)의 충만함을 소유하였다.

구원받은 남자가 “나는 미국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여자가 “나는 메시아적 유대인(Messianic Jew)”라고 말하는 것도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이 이제껏 자기를 정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이다.

신약 교회는 세상 민족에게 주어진 그 어떤 언약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상속자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번 대제사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은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민족적이고 인종적 공감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 육신적 탄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거듭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자.

요한복음 4:22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여인의 조상은 반은 유대인이며 나머지 반은 이방인, 즉 어느 인종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 점을 놓치지 말라. 주님 자신께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속한 민족은 유대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두 민족을 구별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분(HE)이야 말로 모든 종교적이며 민족적인 구분들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사이의 구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서 4:17-19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도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으며 그분의

대한 그들의 생각은 헛되고, 어두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폭넓게 주어진 계시들과 얼마나 다른가? 유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자. 율법을 주심으로 주님의 성품과 방법들을 자세히 계시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자. 예언자들을 통해 유대 민족에게 주신 다양한 통찰력을 생각해 보자. 이방인들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요4장),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행 17장) 무지의 상태로(엡4장) 경배하였다. 그들은 토렘들과, 우상 그리고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람, 나무 그리고 돌들을 우상화하였다. 그들은 부처, 공자 그리고 조로아스터 등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자연, 에너지, 카르마(karma) 그리고 부두(voodoo)와 교제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산에서 경배해야 할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떤 제단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날에 어떤 동물을 바쳐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우상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긴 이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위대한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에베소서 5:22-23을 보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모든 인간의 교제 가운데 가장 가깝고 친밀한 예를 주님과 신자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 제단이나 율법 혹은 그 어떤 경계도 필요치 않으며 불확실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

원히 하나가 된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으신다(히 13:5).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셨음을 살펴보았다. 이 세 부류의 인류는 모두 누군가를 경배한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나 셋째 부류인 교회는 그들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 셋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로마서 3:1-2을 보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특권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은 서로 다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7:26-28을 살펴보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들, 사사들, 왕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들이다.

앞의 구절에 나온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개(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그녀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나 예수

님은 하나님이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그 당시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그녀에게 줄 것이 없었다. 그녀(이방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예수님이 위대한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므로 이방인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2:9-10을 살펴보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민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셨다. 그분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말씀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세계의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존재하며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구별해야만 한다.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비교해 보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 3:1)

이 두 그룹은 소명을 받았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땅에 있는 것이었고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약속되었고 교회에게는 하늘이라 불리는 한 장소가 약속되었다. 나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것보다 교회에게 약속된 소명을 더 선호한다.

“주 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쇠요, 네가 그곳의 산에서 늦을 캐리라.”(신 8:7-9)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매우 위대하다. 오늘날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약속의 땅은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장소였다.

그러나 그런 약속된 땅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빌립보서 3:2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상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8: 20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분과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녀와 비교해 보자. “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 1:4).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풍성한 땅이 약속되었으나 그 약속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은 쓸모 없어지고 사람들도 쫓겨나게 되었다.

교회에게는 한 평의 땅도 약속된 것이 없다. 교회는 지상에서 그 어떤 권한도 통치 영역도 가지지 못했다. 교회는 세상 혹은 권력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정부형태도 받지 못했다. 또한 군대, 호위병, 감옥 혹은 경찰도 교회는 가지지 못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인에게 속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유대인들의 정신체계이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통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유물들은 하늘에 있다.

창세기 24:34-35을 보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 떼와 소 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즉,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땅, 금, 가축, 장막, 마차 등 모두 물질적인 것들이었다.

마가복음 10:23에서 경고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받는 물질적 복에 대한 말씀과 야고보서 2:5에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이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함은 하나님을 믿는 데 오히려 커다란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19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자. 이 말씀은 시온 산에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다른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행 3:6) 교회가 거지에게 제공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즉 보다 나은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성전의 엄청난 장식들과 기구들과 대비가 된다.

다음 경고를 살펴보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

죽할 것이니라.”(딤후 6:8) 이것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명백한 구분이 존재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받은 것은 매우 다르다.⁴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28:7을 살펴보자.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네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길로 걷는다면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경고되는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6:2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는 승리와 보호이다. 교회에게 경고하는 부분은 박해와 도망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함한다.

신명기 28:13에서도 이런 대비를 발견하게 된다.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마태복음 18:4에서 말씀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⁴ 몇몇 사람들이 마태복음,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성경이며, 그 세 장의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과는 반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또한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설교자들에 의해 전파되는 소망의 대부분은 신약교회에 약속된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물질적 복임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소망은 이 지상에서 매우 큰 것이었다. 이에 반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했어야 했고,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불리었으나 결국 위대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13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명백히 이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규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인류를 세 가지 분류로 명백히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백인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또한 미국인 성도 혹은 흑인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인간 자신이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유산 혹은 사는 지역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자는 딱한 마음이 든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서 출생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을 주셨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백인이거나 흑인 혹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더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여러분이 남성이라서 혹은 여성이라서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지도 않다.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의 첫째 출생은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의 종착역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차를 타고 거기에 가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것이다. 왜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려고 하는가?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사실을 찬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다. 현재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자신들을 보다 나은 성도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것이라 상상했다. 갈라디아서 3:26-2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남성이거나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고후 5:17). 옛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당신의 육신적 족보가 아닌 주님을 찬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빼앗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자. 나는 성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장로교회에 시무장으로, 혹은 율법을 지키려는 엄격한 안식교 교인이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소위 상위 0.0001%에 속하는 올바른 성도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머지 99.9999%의 기쁨과 교제의 특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데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편 없는 거래가 아닌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내가 <성경과 인종(The Bible and Race)>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그 책이 백인과 흑인 간 인종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매우 좁은 독자층에게 호소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 세계 사역현장에서 이 책을 본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들이 더 많은 책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인종간 교제가 잘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종과 민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다.

“내가 속한 그룹이 당신의 그룹보다 좋다는” 그 어리석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야만 한다.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좋다. 물론 이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에 가서 결국 버릴 것들을 얻으려는 노력을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

같은 종류의 진실을 에베소서 2:11-14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들은 동일한 육체를 소유했다. 그들의 피부와 얼굴 색깔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으로 불렸다. 성령님이 더 이상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하나님은 유대인과 밀접했으나 이방인과는 멀리 떨어져 계셨다. 그러나 현재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한때 하나님과 더 가까웠었고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것

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께로 멀어졌으며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살펴보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돌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가르친다. 현재는 없어진 유대인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한 벽이 과거에 존재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과거에 벽이 존재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벽을 허물었다. 이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문맥상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함이 명백하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6) 수세기 동안 아담의 자손을 나누었던 분쟁은 새로운 출생과 더불어 끝이 난다.

나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많은 편지와 전화를 받는다. 서로 다른 두 민족 혹은 서로 다른 종족에서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은 교제하기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이 지상의 아버지 즉 자신들의 육신적 선조에 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여러분이 이것에 집착한다면 육신적인 여러분의 선조, 그 하나에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좇아 영원한 진리 되며 참된 가치가 있는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 12:12)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논점이며 우리가 취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살펴 보자.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신 21:18-21)

이 구절을 자신의 교회를 통치할 하나님 왕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비교해 보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눅 15:20-23)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서는 반역한 아들은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반역한 아들이 회개하면 환영 받고 복까지 받는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배 하라고 하셨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레 17:8-9) 이것을 보면 죽음에 처해지는 이유가 잘못된 신을 경배해서도 아니며 잘못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도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것과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마 18:20)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제공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방향에서 누가복음 1:10을 살펴보자.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기도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19-20과 비교해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민수기 3:10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인 것이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거역할 수 없다.⁵

또한 미래에 관해서는 유대 민족과 교회시대의 성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요한복음 14:2-3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의 미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통수단이 데살로니가전서 4:15-17에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육신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20-2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⁵ 베드로전서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향해 기록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베드로전서에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율법 아래서 경배를 드리던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베드로전서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같이 만드시리라.”

우리는 하늘로 채여서 올라간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자신의 것처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장소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3: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복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 누가복음 1:31-33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소망이 지상 위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고 주님은 그 기초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치할 것이다.

로마서 11장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1, 24-26절).

대환난이 끝날 무렵, 야곱의 고난의 때로부터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슬피 울고 회개하며 그들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길에서 회심한 바울의 모습은 이 위대한 날에 발생하게 될 장면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이 세울 지상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1:11에서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그 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대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와 파라오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은 이미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통치 아래서 죽어갔다. 심지어 요셉도 죽었고 그의 뼈만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는 어린양의 피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마찬가지로, 환난시대에 끝까지 살아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은 못 하게 되나 이 지상 위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향유할 권리는 갖게 된다.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라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사 14:1)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이방인들도 그 땅에 거할 수 없다. 모든 전쟁과 갈등이 끝나고 이방인들도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증오는 모두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야곱의 집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다.

예레미야 16:14-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지상 왕국을 누리시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약속이지만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렘 23:5-6)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된 소망은 그들의 왕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그들을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 소망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성취된다.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격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렘

32:37-38)

스바냐 3:14-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 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유대인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다. 그들의 소망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교회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이다. 이 둘은 다르다. 여러분은 이것을 같게 만들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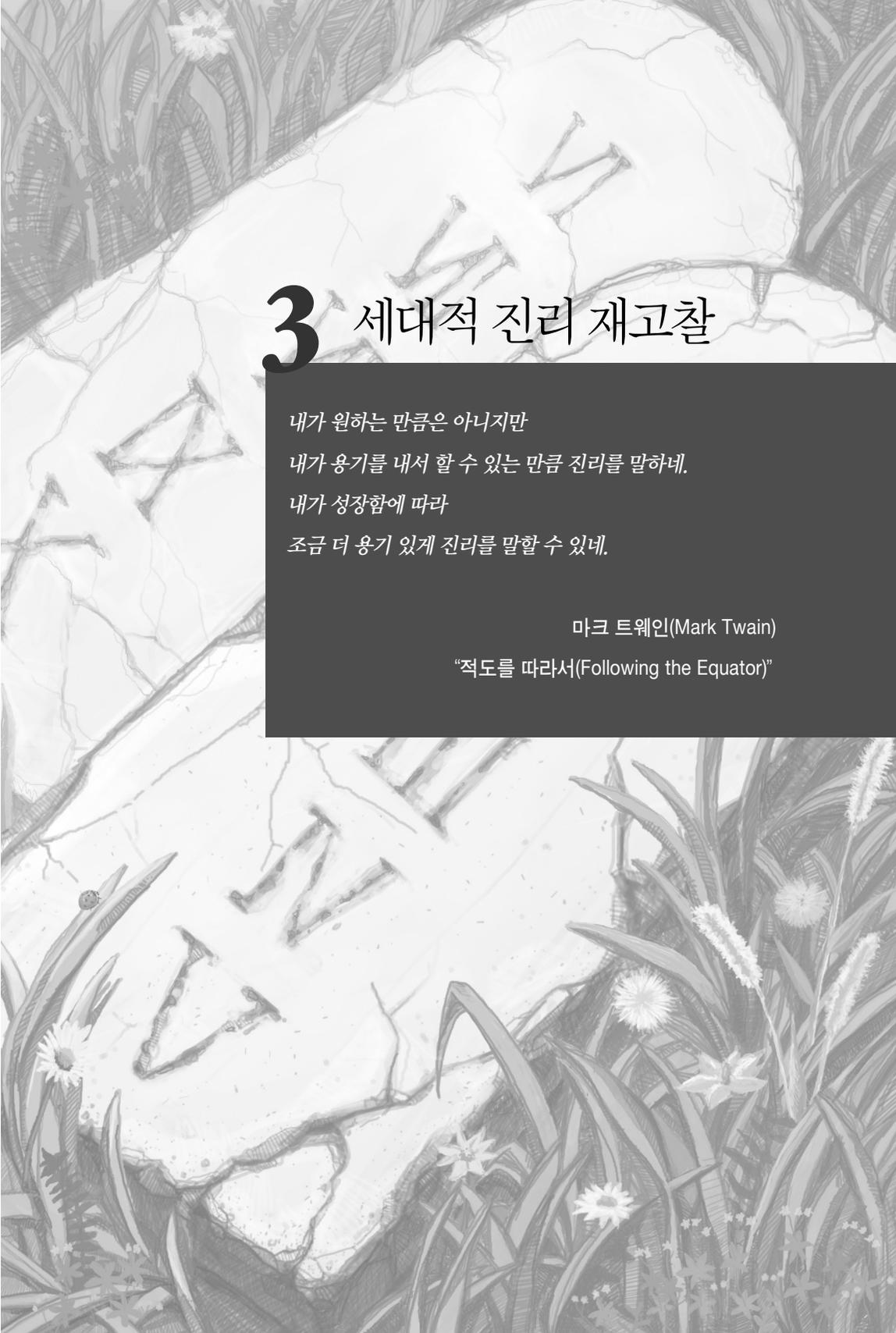
사도행전 15:14-17의 내용은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치는 바와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교회시대의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고 교회라 불리는 주님의 몸을 형성하였다. 교회시대 초기에는 얼마간의 유대인들도 구원받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는 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채워졌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교회가 휴거 되고 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시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신약시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천년왕국시대에는 과거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유대인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 11:39-40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그룹(유대인)에게 다른 그룹(이방인)에 비해 더 좋은 것을 예 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서로 같지 않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교리와 실제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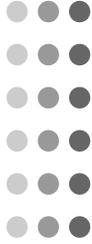


3 세대적 진리 재고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만큼 진리를 말하네.
내가 성장함에 따라
조금 더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네.

마크 트웨인(Mark Twain)

“적도를 따라서(Following the Equator)”



제3장 세대적 진리 재고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경륜(dispensations)이라 불리는 단어이다. 배급소(dispensary)라고 불리는 곳은 물건들을 분배하는 장소이다.

세대 혹은 경륜에 대한 오류와 극단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 기인한다. 많은 성경교사와 학생들은 세대 혹은 경륜을 어느 한 시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륜을 마치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부정확한 이해는 더 나아가 세대적 체계(dispensational systems)에 대한 오해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앞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느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그룹을 다루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표시해 준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니며 더욱이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우리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나누어주다(dispense)”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경륜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나누어 줌, 여러 개인들 혹은 장소에 나누어 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분배해 주는 배급소로 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나누어주셨다.

경륜의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루시는 방법, 즉 신성한 통치 아래서 선과 악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돌에서 물을, 선하고 완벽한 선물들을, 생명과 구원 등을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셨다.

셋째 정의는 분배되는 혹은 부여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규정되는 원칙과 규범의 체계를 말하고 있다. 레위 법과 규범을 포함하는 모세의 경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 경륜 등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경륜의 정의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한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륜을 어느 시점의 시작과 끝을 연관시켜 생각한다. 분배하는 것은 나누어 주거나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에 걸쳐 진리를 나누어 주셨다. 새로운 진리가 주어지면 그것은 분배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인간에게 선물, 재능, 축복,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셨다. 이런 것들은 분배(dispensation)의 행위들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구절을 주위 깊게 살펴보자. 에베소서 3:1-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것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혹은 진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이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려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인간에게 알리고자 했던 진리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이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다. 은혜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선물인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구절을 통해 명백해진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경륜인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것이 바울이 경륜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경륜이 시대의 한 시점이나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9:16-18을 살펴보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rod!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a dispensation of the gospel)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나?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rod.”

이 구절에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 구절의 주제는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1.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I preach the gospel)
2.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if I preach not the gospel)
3. 이것을 행하라(do this thing)
4.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I preach the gospel)
5. 나는 복음을 값없이 선포한다(I make the gospel without charge)

우리가 이 구절을 편견 없이 읽는다면 경륜(dis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남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교리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형제들이 이 구절은 바울이 어떤 새로운 복음에 헌신되었거나 혹은 과거에 선포한 적이 없는 교리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구절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분배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권능이며, 이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나오는 곳은 골로새서 1:23-28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이것은 복음이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 성령님에 의하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 바울의 회심 전에도 복음은 선포되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여기에 교회가 나온다. 바울은 그 교회를 박해했다(갈1:13).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 이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롬**

16:7).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분하신 것은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교회 혹은 새로운 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 진리를 선포하도록 한 특권과 의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부분적으로 바울에게 제공됨)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부분적으로 바울에게 제공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하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⁶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보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 1:9-12)

여기서 우리는 라킨이나 스코필드 같은 학자들이 경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류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⁶ 벌린저(Bullinger)와 스템(Stam)과 같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개념들을 추가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잘못 정의한 개념은 자신들의 생각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인도한다.

들의 최고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고자 했던 위대한 진리이며 계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시대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분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의 아들의 영광과 선하심을 계시하고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경륜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소위 세대적 진리라 불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대적 진리에 대한 교리가 불명확하며 오류를 가지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둘째는, 디모데 후서 2:15절을 잘못 사용한 데 기인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 여기서 이전 시대의 많은 성경 교사들이 “경륜은 나누는 것”이며 “나누는 것은 경륜”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오해가 경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빛을 나누어 주셨고(창1:3) 그 후에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창 1:4). 이 두 가지 행위들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하셨고 염소로부터 양을, 가라지로부터 알곡을 분리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분배 행위(acts of dispensing)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공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교회에게는 성령님이 거주하도록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는 일이다.

경륜을 설명하는 고전적 방법의 도표와 그림들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혼돈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 결과, 그것들은 경륜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 시작과 끝나는 시점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륜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면 분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진리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새로운 다른 진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분배해 주시는 경우(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선택 하시며 그것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심) 시대적 구분은 분명히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끝나는 시점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설명하기 쉬운 예를 한 두 가지 들고자 한다. 라킨과 스코필드의 고전적 경륜 모델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제공하셨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율법의 세대(Dispensation of Law)”의 시작을 보여주는 헌선이 그어진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함과 부활의 시대로 진행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혹은 교회의 탄생(누구의 도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에 대해 세대적 진리 모델은 교회시대 혹은 은혜시대의 시작점을 표시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게 됨을 보게 된다. 여러분이 잠시 주의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1. 율법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율법 아래 그 땅에서 사는 것이다.
2.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시 율법이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된다.
3. 현 시대에는 율법이 인간을 예수님계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공해 주신 후에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함을 보여주는 충분한 예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부에도 시작점이 있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은 없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정부에 통치를 받는 인간은 계속 존재한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인다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교회시대의 시작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교회는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없다. 왕국의 시작점은 주어졌고 그 왕국은 영원히 존재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의 끝나는 시점이나 혹은 그것을 다시 철회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륜을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가르쳐 온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나누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경륜은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 예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지식을 소유한 학자가 여기저기 선을 그으면서 율법에 의해 인간을 다루는 방법과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는 우리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대인 외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율법의 조건과 기준으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다루지 않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 어떤 시점도 필요하지 않다. 그분은 율법을 통해 인류의 아주 작은 한 부류(유대인)를 다루셨던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율법 이전에 배분된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대에 다른 경륜을 통해 다루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분은 있으나 경륜의 구분과는 다른 점이다.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를 통해 성경의 주된 관심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율법을 기초로 예수님의 초림 전 1500년 동안 교제를 해왔다는 설명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우리는 경륜이 정의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구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두 개의 구분

하나님의 성육신 이전의 인류

하나님의 성육신 이후의 인류

세대적 체계의 문제점은 그것이 수없이 많은 추측에 의존하는 반면 올바른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성경에서 충분히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것은 어떤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구약은 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고 신약은 주로 교회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해 구약을 규정하며 나누어 주셨고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을 통해 구약을 규정하고 나누어 주셨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은 명백히 구분됨에도 전체 성경을 하나씩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의 첫 12장까지는 아마도 인류역사의 1500년부터 2000년 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들은 구약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주심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1:1에서 한 선을 긋고 그때부터 구약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교회의 확립과 완성, 이중 그 어떤 것도 구약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효화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말라기 4:6에서 한 선을 그어 이것이 구약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마태복음 1장 이전에, 혹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신약이 배분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갈보리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신약의 확립을 예표하고 있다.

26장의 마태복음, 13장의 마가복음, 21장의 누가복음과 19장의 요한복음은 모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분이 성경의 39번째 장과 40번째 장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은 이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면서 매우 극적으로 바뀌었다. 보이지 않았고, 멀리 있었으며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생활하셨다. 이것이 열쇠이다. 위대한 구분은 율법과 은혜 혹은 정부와 왕국의 구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것이야말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아담으로부터 베들레헴 그 밤에 하나님은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딤후 6:16) 그러나 마리아가 그 어린양을 잉태한 후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요일 1:1-2).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원한 그분의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성(人性)을 말씀으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신약에서는 자신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며 그를 보고 그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해주고 계신다.

정리하면, 성경을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누는 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과 육신으로 오신 이후로 나누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세 개의 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과 죽음에 속박되었던 인간

영적으로는 자유롭게 되었으나 육신적으로는 사탄과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탄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인간

세상(the World)의 끝

갈보리

세상(The World)의 끝

다시 오심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는 다른 방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 방법에 의하면 성령님이 마태복음 13:24-40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9:24-26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경은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세상(the world)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권력체계를 의미함을 알고 있다(삼상 2장).⁷ 세상 제도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 질서를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

히브리서 9:24-2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⁷ 저자의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를 참고하라.

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했던 세상, 즉 한 체계가 존재했다. 그 세상에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히 2:9-10). 그 세상에 정사와 권능이 그들 손에 있었다(엡 4장, 골 1장). 그 세상에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전 15:55-57). 그 세상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고 사탄보다 강한 자는 없었다(히 2:14-15).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타락한 죄인을 회복시키셨으며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그 세상은 끝나게 되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혼에 대한 사탄의 영적인 지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 대해 승리하심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 위대한 사건이 “**세상의 끝**”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24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렸으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 13:24-40)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하나의 사건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47을 보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마 13:47-51)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끝이 온다고 두 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두 번이나 그 사건의 시점을 규정하셨다. 지상 파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상에서의 통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분의 죽으심,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각 개인들을 죄의 속박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점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위대한 희생은 세상의 경로를 바꾸지는 않았다. 가라지는 계속해서 알곡과 함께 자라고 악한 물고기는 선한 물고기와 계속 헤엄칠 것이다.

혼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삶도 변했다. 교회는 세워졌다. 진리는 선포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 2,000년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서는 이 점을 미리 예견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왕국을 취하시요(계11:15), 이 지상 위에 확고한 통치를 이룩하시며(사9:6-7), 모든 반대 세력을 파멸시키고(단2장)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다. 이 과정은 매우 완벽할 것이며 권력의 변화는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님은 이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셨다.

사무엘상 2: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된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요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지구는 광활한 땅으로 이루어

졌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경이로운 작품이다. 이 땅에는 폭포도 있고, 새, 숲, 산, 바다 그리고 동물들이 가득하다. 이 지구에는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러나 지상에 어떤 자(사탄)가 어떤 것(죄)을 들여와서 이 세상을 조작하였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요일 2:15-16)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며 창세기 1장에서는 이를 신(god)이라고 불렀다. 성경은 이 강력한 영향력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한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군가가 그를 자유롭게 해 줄 때까지 이 세상에 갇혀 있게 된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구원사역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쳐부수고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사탄을 제거하고 그의 정사와 권세를 탈취하십시오. 세상의 끝이 온 것이다.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 이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히고 마귀가 사람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고 자해하게 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후에는 모든 전쟁은 그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숨은 자를 발견하게 되고, 마귀의 사역자, 거짓 사도들, 빛의 천사 그리고 사탄의 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탄은 더 이상 인류에 대해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가장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탄은 종교적으로 변하였고 그의 권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기와 도둑질을 통해서만 역사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 체계가 생긴 것이다. 이제 사탄은 힘이 아닌 속임수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쉽게 루시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세상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하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사탄은 그때 이 지구로부터 쫓겨나 갇히게 되고 이 세상 체계는 그 종말에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사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실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소수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체계를 변화시켜 짐승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 두려워하곤 한다. 성경적으로 새로운 세상 명령체계는 A.D. 33년에 시작되었고 이방인의 시대가 짐승의 통치를 통해 절정을 이루고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 진리는 베드로후서 3:4-7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속이는 자들은 창조 이후 발생했던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모든 것이 같다고 주장한다.)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홍수를 통해 세상은 파멸되었으나 하늘과 땅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 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이 물리적 구조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 혹은 시스템이다. 이

세상은 영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도 이 제도는 주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재림 때까지, 이 제도는 항상 주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어떤 사람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세상의 길이나 유형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제도는 주님의 뜻에 따라 파멸될 것이다.

성경은 세상 제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세상이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홍수로 파괴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루시퍼의 반역에 기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나 100%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확립된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은 죄로부터 발생하였고 예수님의 희생을 지불하기 까지 존재한다. 이것이 모든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유이다(롬5장). 그러나 사탄의 죄는 아담의 타락이전에 존재했다. 한 죄가 그 이전시대에 들어와서 다음 시대들에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물로써 심판을 받았으며(벧후3:6) 세상의 기초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확립되었고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God)이 도래하면서 세상의 끝이 왔으며(히9:26)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이 도래하면서 세상의 끝이 왔고(마13장)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세상은 끝이 없다(엡3:21, 사45:17).

고전적 모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7개의 구분

무죄(Innocence)

양심(Conscience)

인간정부(Human Government)

약속(Promise)

율법(Law)

교회(Church)

왕국(Kingdom)

앞으로 살펴볼 세대적 구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7개 혹은 8개의 구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 시대들은 일반적으로 무죄, 양심, 인간정부, 율법, 교회, 왕국으로 표현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교회 대신에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 8개로 구분을 한다면 이는 영원(Eternity) 혹은 그와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런 논리라면 과거의 영원(eternity past) 시대를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7 혹은 8이라는 숫자의 독특한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대주의 학자들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물론 기원전4,000년 이전에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유쾌하지 않은 생각을 피하도록 해준다.)

세대적 진리를 살펴보는 모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계시해 주신 시대들을 통해 역사를 나누고자 한다. 그 추가적인 계시를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벽하고 보다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

다.

무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담의 콧구멍에 호흡을 불어넣고 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 살아있는 혼과 그를 돕는 자로서 여자가 함께 완벽한 무죄의 상태로 에덴동산에 거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첫 상태를 묘사하는 데 이 단어가 선택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죄하다는 의미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으며 죄로부터 자유롭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어떤 법률도 어기지 않고 잘못된 일도 하지 않으며,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으며, 순결하고 바르며, 어떤 범죄나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거닐고 있었던 그 상태를 이 단어는 정말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무죄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없다.

첫째 경륜에서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간단한 명령만을 제시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5-17)

첫째 부부가 지켜야 했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무죄는 즉시로 사라졌다. 창세기 3:9-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첫째 경륜에서 남자와 여자는 실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어느 누구도 인류의 타락 이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흘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어떤 한 연대나 시대로 지칭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부부가 하나님과 2-3백 년 동안 완벽한 교제를 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변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많은 계절이 지나기 전에 이 명령에 복종했다면 많은 자손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이 관점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들이 이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첫 번째 죄로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이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저자는 인간의 타락은 이브의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런 관점을 입증하는 몇 가지 성경구절이 제시하겠다.

첫째, 성경은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 씀하고 있으며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증언하고 있다(요 8:44). 성경은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사탄의 타락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으며 그가 타락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믿는다면(욥 22:8, 사 14장, 겔 28장), 그리고 그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면(요일 3:15)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탄이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인가? 그는 파괴하고 거짓말을 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무죄한 두 사람이 있었다. 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사탄)”가 목표물에 달려들기 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바로 타락했다고 추측하는 둘째 이유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

님과 더 오랜 시간 교제를 했다면 그들이 창조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로 인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컸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사탄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확립하도록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십계명과 인류의 첫 범죄를 비교해 보자.

1.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담은 이 세상의 신을 선택함으로써 이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
2.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본 것을 세웠다.
3.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으나 그런 위대한 지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다.
4.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5. 살인 하지 말라: 그는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6. 간음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종종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마음의 문제이다.
7. 도둑질 하지 말라: 아담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과일을 취했다.
8.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담은 여자를 비난했고 여자는 하나님을 비난했다.
9.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들은 선과 악의 과실을 탐했다.

아담이 타락했던 그 날, 십계명 가운데 9가지를 범한 것이다. 만일 이런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다음날 즉 7일째 날인 안식일에 발생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명령을 주신 지 24시간도 채 못되어 이 10계명 모두를 위반한 것이 된다.

무죄의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대 보다 좋은 점이 있었다. 이 때는 인간이 평생 싸워야 되는 죄의 본성이 없던 시

절이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해서 유혹에 대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환경의 문제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에덴동산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난, 전쟁, 교육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삶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는 결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무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 대화하셨다. 그 당시엔 어떤 책이나 예언자, 중재자 혹은 천사의 방문도 없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위대했으므로 이를 오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죄의 본성이 이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답전 2:14).

세대적 진리 모델에서는 무죄의 시대가 에덴동산에서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언제 발생했고 무죄 시대의 끝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로 여기시는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된다. 그들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롬5:12)로 인해 고통을 받으나,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롬 5:13)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 죄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고 이 죄로 인해 죽음이 도래했으나,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죄를 물려받게 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를 주신 것은 아니다. 당신의 혼을 잃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죄를 지어야만 한다. 따라서 무죄의 상태는 실제로 모든 경륜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바울도 한 때 율법 없이 살았다(롬7:9). 다윗의 아들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의 회개하는 아버지로 인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삼하

12:23).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점 동안 무죄를 제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나님이 결코 다시 그것을 물리지 않았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창세기 1:4-31에 나타난 창조로부터,

1. 무죄시대의 인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2. 기간: (1) 인류와 관련해서-아담의 창조로부터 그의 타락까지 지속됨.

(2) 개인과 관련해서-출생으로부터 알려진 진리를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까지 지속됨.

양심

고전적 모델의 둘째 경륜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나 대체적으로 양심의 시대로 규정된다. 이 시대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를 이루고 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개적인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잠시 후에 세 가지 예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사전에 주시는 경고를 인지하는 능력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아담, 이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롬1:18-20). 성경 교사들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많이 열거했으나 로마서 5장과 7장을 통해서 이후에 율법을 구성하게 될 기본적 원칙과 이방인들의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롬 2:14-15)

모든 아담의 자손은 본능적으로 분노의 자녀이고(엡 2:3)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시 58:3) 사실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신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한 과실나무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롬 10:17)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바치는 것도 알고 있다(히 11:4).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담으로부터 구전된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세 번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인류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좁으며 경배와 종교에 대한 올바른 길과 선택도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한 겸손한 복종만이 받아들여진다.

둘째, 주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며 인류의 사악한 상태와 그것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해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유 14-15).

셋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도래할 것임을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다.

이 둘째 시대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타락한 부부로부터 태어난 첫 두 아들의 역사로부터 큰 홍수로 인류를 잠기게 한 시대까지, 인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된다.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4:4-7) 사람들은 올바른 헌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지정한 헌물을 가져와야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창 6:5-8) 다시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세대적 진리 책에 묘사된 그림에서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그리고 9장과 10장 사이에 한 선을 긋는다. 이는 양심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부여(제공)하셨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이 양심이 에덴 밖에 있는 곳을 향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에덴에서 홍수시대까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어떤 것에 대하여 끝나는 시점을 긋는 것은

올바르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양심을 지녀왔고 인간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사용하셨다.

양심은 두려움이나 후회를 불러낼지 모르나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양심에는 권능이 없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8:9), 또한 선한 양심 가운데 사는 경우와(행 23:1; 24:16), 양심을 통해 간증하는 경우를(롬 9:1-2, 고전 1:12)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양심은 잃어버린 혼을 인도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 믿는 신자는 양심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롬 13:5, 고전 8:7-12, 고전 10:25-29, 고후 4:2). 신자의 양심은 여전히 선한 증거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후 5:11).

거듭난 신자는 선한 양심(딤후 1:5, 19, 히 13:18, 벧전 3:16), 순수한 양심(딤후 3:9, 딤후 1:3) 그리고 정결한 양심(히 9:14)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두에 지저진 양심(딤후 4:2)과 사악한 양심(딤후 1:15)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제공해 주셨으나 이것을 거두어 가는 시점이 없는 것이 명확하다.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대하고 계신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창세기 3장까지,

1. 양심을 소유한 인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진리의 기쁨을 제공해 주셨다. 이것은 전에 아담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인류에 대해 어떤 개인들에게(가인, 에녹, 노아)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

2. 기간: 영원함

인간정부

일반적으로 세대적 진리 모델에서는 대홍수 이후에 인간정부를 통해 하나님을 다룬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홍수 이전에 국가, 왕, 군대 혹은 대다수의 인구를 통치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방법, 즉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대홍수 이후에 우리는 민족의 기원에 대해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자손들이 아닌 부족과 민족들이 등장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창 9-10장). 그리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하게 된다(창 11장).

인간들이 갑자기 그룹별로 흩어지고 개인들이 인구의 대표로서 권력을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형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한 인간의 역할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다. 이스마엘은 인류의 또 다른 계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시조인 것이다. 성경은 인류 전체를 설명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아비멜렉, 이삭, 파라오, 요셉, 아므라벨, 이드로와 야곱 등이 그 예이며 이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 기간에 주님은 한 개인이나 인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한 민족의 대표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표를 통해서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전달하고 대표를 통해 주민의 질문에 응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 왕의 통치행위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시민이 아닌 지도자인 벨트사살과 논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고레스나 느브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왕국아래서 인생을 산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는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 진행되

는 현상이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들의 민족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전에 주신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정부의 개념은 새로운 경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신 것의 연장인 것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민족에게 또 다른 하나의 빛이 제공되었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간접적으로 받게 됨을 살펴 볼 것이다. 모세-파라오, 느부갓네살-다니엘 그리고 니느웨-요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인류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시민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고 잘한 것을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롬 13장). 하늘의 왕국은 이처럼 강한 힘으로 통치된다(마 11:12).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나(마 4:8-9)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잠 21:1).

이 시대의 실패는 명백히 발견할 수 있다. 노아에게 부여된 간단한 원칙에서 벗어나 인류는 자신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세로서 위에 있는 것을 구하고자 했다. 주님을 배제한 채로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들로 하여금 시날 평야에 멈추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

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창 9:1-6)

창세기 11:1-4에서 제시된 시대에 대해 살펴보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우리는 모든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민족들을 분열시키셨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어떤 선을 그어 그 시대의 끝을 표시할 수 없다. 인간정부는 영원히 지속된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왕국을 취하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그 왕좌를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1. 인간 정부 아래 있는 인간: 무죄와 양심의 시대의 실패에 이어서 하나님은 소수의 인간에게 통치 권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혹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대리인에 불과했다.

2. 기간: 영원함

⁸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참조하라.

언약

고전적 모델의 넷째 경륜에 속하는 것은 언약의 경륜이다. 이 세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기간을 포함한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 자손에게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고 특별한 언약을 제공해 주셨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매우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제공해 주신 매우 특별한 세대이다. 무죄, 양심 그리고 인간정부 시대는 그것들이 시작된 시점 이후로 모든 혼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만 유일하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와는 모든 흠어진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여 불러 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두 언약 - 그가 광대하고 수없이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무수히 많은 후손들의 아버가 될 것이라는 - 에 의지해서 미지의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더하여졌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더하여졌다.

이 경륜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나, 성격, 대언자 그리고 목자들을 받지 못했다(롬 9장).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확장시켰다.

세대적 진리 도표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친숙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한다. 언약이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분명한 시점이 존재하지만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한 선을 긋고 “언약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율법은 시작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약속의 땅은 항상 히브리 민족에게 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영원히 머리가 될 것이

다. 사실은 율법의 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환난시대가 끝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실제적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언약들을 제공하셨고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거나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이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롬 11:29)

여러분은 어쩌면 아브람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선물을 부여 하심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륜도 앞선 시대와 동일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은 믿고 복종하기만 하면 됐다. 모든 시작은 좋았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3).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창 15:6)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인간은 그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했다. 율법을 주심에 앞서 족장시대는 여전히 민족의 시대를 잉태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 집트 땅에서 고기 술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출 16:2-3)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배반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창세기 12장까지

1. 언약을 소유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만이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다.
2. 기간: 영원함

율법

다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경륜에 들어간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율법시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의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율법을 제공해 주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율법은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자. 율법의 어느 조항도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율법은 이방인들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자. 약속의 땅은 영원하다. 율법이 언약에 추가된 것이지 그것을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율법은 그들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율법에 복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거하며 향유 할 수 있으나 만일 율법에 불복종 한다면 그곳에 거하는 기쁨을 뺏길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약속의 문제이다. 갈라디아서 3:17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새로운 경륜이다. 시내산 광야로부터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산에 이르는 이 기간 성경의 초점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한 민족(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 모른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인가?” 그들의 임무는 돌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이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통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부적으로 경이롭게 쓰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시대를 종결 짓는 한 선을 긋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공한 후에는 그것들을 결코 되돌리는 경우가 없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거듭난 신자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또한 한 삶이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좌에 앉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정부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신명기 7:11-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즉 너는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네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네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의 수컷과 암컷 중에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네게서 제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질병도 네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모든 시대에 있어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 이 믿음은 복종에 의해서 입증된다.

마지막 결과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말들로 요약된다.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 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단 9:5-7)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건 간에 그 결과는 항상 같다.

시내산으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1.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언약을 소유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만이 의로운 삶에 대한 이 기준을 향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돌 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다.
2. 기간: 영원함

교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은혜의 시대로 설명하는 데는 수많은 오류와 폐해가 존재해 왔다. 이것은 이 시대가 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 아담이 생명을 유지한 것은 은혜였다. 홍수 이전에 방주를 예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롯을 소돔에서 구한 것도 은혜였다. 유월절 밤에 어린양의 피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은혜였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들을 전부 멸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흩어 놓으신 것도 은혜였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 다윗, 삼손, 엘리야, 기드온, 아사, 롯, 라합 그리고 에녹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

다. 구약성경을 통해 수천 번 이상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선하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기보다는 교회시대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다. 구원자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3장, 롬 7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며(고전 12장),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고(롬8:9)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골 1장)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엡 2장).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발생한 단순한 발전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의 연속이나 확장이 아니다. 이전에는 한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이다(벧전 2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제공해 주신 것의 수정된 모습이 아니다.

이 경륜이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이라 불리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나 계시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계22:18-19). 설교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교사들이 존재하나 그들이 만일 사도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유대인들을 권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시대 지도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환상, 감정 그리고 느낌과 같은 저급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

공해 주셨다(벧전 1장).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주신 시점, 즉 명백한 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들림 받는 시점에 한 선을 긋고 그것을 교회시대의 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휴거라 불리는 현상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되지만 그것이 교회시대의 끝은 확실히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고, 어린 양과 혼인하고, 다시 통치를 하며 신랑과 상속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담 이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완성된 성경과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공급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분의 피로 씻기고 새로운 생명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에베소서 2:8-10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하며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 시대의 실패는 성공에 대한 기회가 매우 컸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딤후 4:3-4)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

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계 3:15-18)

성령님을 주심으로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1. 교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육체적 출생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2. 기간: 영원함

왕국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공부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성경 자체보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대적 진리 모델을 예로 들어 보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하고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곱 시기나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좋아 보인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를 증명하기 위해 세대적 진리 모델을 사용한다. 이것은 마치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 탄소 연대측정법을 사용하고 탄소 연대측정법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사용하는 논리와 비슷하다.⁹

⁹ 탄소 연대측정법(carbon dating)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 탄소의 양을 이용하여 오래된 물질의 시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역주

우리는 교회가 휴거 되고 일곱 번째 경륜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니엘의 70주라고도 불리는 7년간의 대환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환난기간에 있을 21번에 걸친 심판과 유대인 남은 자들의 구원 그리고 지상왕국의 전복 등은 교회 시대의 목적과 사역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야곱의 고난의 때를 새로운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래 전 시작된 시대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세대적 진리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가 대환난을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그 7년간의 시간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고 그 환난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 반역했던 지상에 있는 백성을 고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연구는 대환난을 새로운 경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도 아니며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하신 것도 아니다.

그 칠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대환난의 증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를 주목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8개월 동안 새롭게 제시된 언약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은 “끝까지 견디고 모든 것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유대인, 이방인 혹은 교회에게 새롭게 주어진 진리는 없다.

교회는 일종의 괄호(parenthesis)로서 전체 큰 흐름 가운데 조그맣게 삽입된 시기이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라합과 룻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전체 관계 스토리 가운데 한 여자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왔으나 그 여인은 곧 사라지고 전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된다. 대환난을 가장 명확히 설명하는 구절은 그것을 새롭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전 세

대의 끝으로 보게끔 인도한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단 9:24)

다음으로 우리는 왕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 새로운 세대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왕들의 왕(King of Kings) 그리고 주들의 주(Lord of Lords)로 이 세상에 통치하러 오시는 구원자의 재림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지상에서 발생할 가장 획기적인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경륜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인다.”(사 9:6). 이것이야 말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데 실패했던 모든 것을 완벽히 대치할 영광스런 모습이다. 이것은 경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을 새롭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 시작된 것들을 이롭게 끝내는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 위에 앉을 것이다(눅 1:32). 마찬가지로 그 왕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낡은 것의 행복한 결말이다. 그 도시는 예루살렘(옛 것)이며, 시온 언덕 위에 있고(옛 것), 그 왕좌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의해 확립된 것이며(옛 것),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옛 것) 오실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왕국이 새로운 경륜이 아니라 옛 것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발견하게 된다.

“법이 시온으로부터 나간다.”(미 4:2) 어떠한 법들이 이 왕국의 시민들을 통치할 것인가? 왕이 오심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오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경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과거에 주어진 율법에 복종하며 살 것이다. 그 날에 경배는 새로운 질서와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0-48장에 묘사된 레위 율법에 따

라 완벽히 구현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이 유일한 기준에 따라서) 왕국으로 들어올 양과 심판될 염소로 구분될 것이다(마 25장).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던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란다. 약속의 땅, 평화, 안전, 오는 왕국의 번영은 새롭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제공된 것들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이다.

교회의 휴거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1. 새로운 경륜이 아님: 그러나 이전 많은 세대들을 성취함, 인간정부가 완성됨,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언약들이 성취됨, 적절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에 복종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통치함,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없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 계신다.

2. 기간: 영원함

따라서 우리는 인류역사상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이 기간에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진리들은 끝나는 시점이나 혹은 다시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 세대에 있어 이것을 믿고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각 세대에 있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인간의 실패로 인해 심판으로 각 세대가 끝나게 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서 통치하시는 순간에도 인간은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천 년의 평화의 시기는 결국 반역으로 끝나게 된다. 왕국이 어떻게 시작해서 끝나는지를 살펴보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네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사 12:1-6)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 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 20:7-10)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제공하든,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든 상관없이 인간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무죄의 시대는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끝났다. 양심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끝났다. 인간정부의 시대는 바벨탑 사건에 이르렀고 이는 언어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흠으신 계기가 되었다. 언약의 시대는 이집트에서의 열 개의 재앙과 홍해의 사건으로 마무리 되었다. 율법의 시대는 갈보리 산에서 메시아의 피 흘리심으로 끝났다. 교회시대 끝에서 이 세상은 대환난에 직면하며 아 마겟돈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왕국 시대의 하늘들과 땅은 불에 의해 불태워질 것이다.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며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 세대적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1. 무죄: 한 아이가 자신의 형에게 장난을 치며 때리거나 혹은 누나에게 공격적으로 대드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자. 무죄의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

2. 양심: 얼마 안 있어 양심이 삶에 들어왔다. 동일한 공격이 행해지나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3. 정부: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통치한다. 양심이 작동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행위는 억제되지 않는다.

4. 언약: 아이가 무죄의 시대를 지나 외부적 압력을 통해 지배되는 양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격려하고 소망을 붙여넣고 언약을 부여하여 사랑으로 양육하려 한다. 선한 부모는 정부를 통해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대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좋은 직장을 얻어라.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두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몇 가지만을 고려하게 된다. 어떤 경계선이 세워졌으나 이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의 소망이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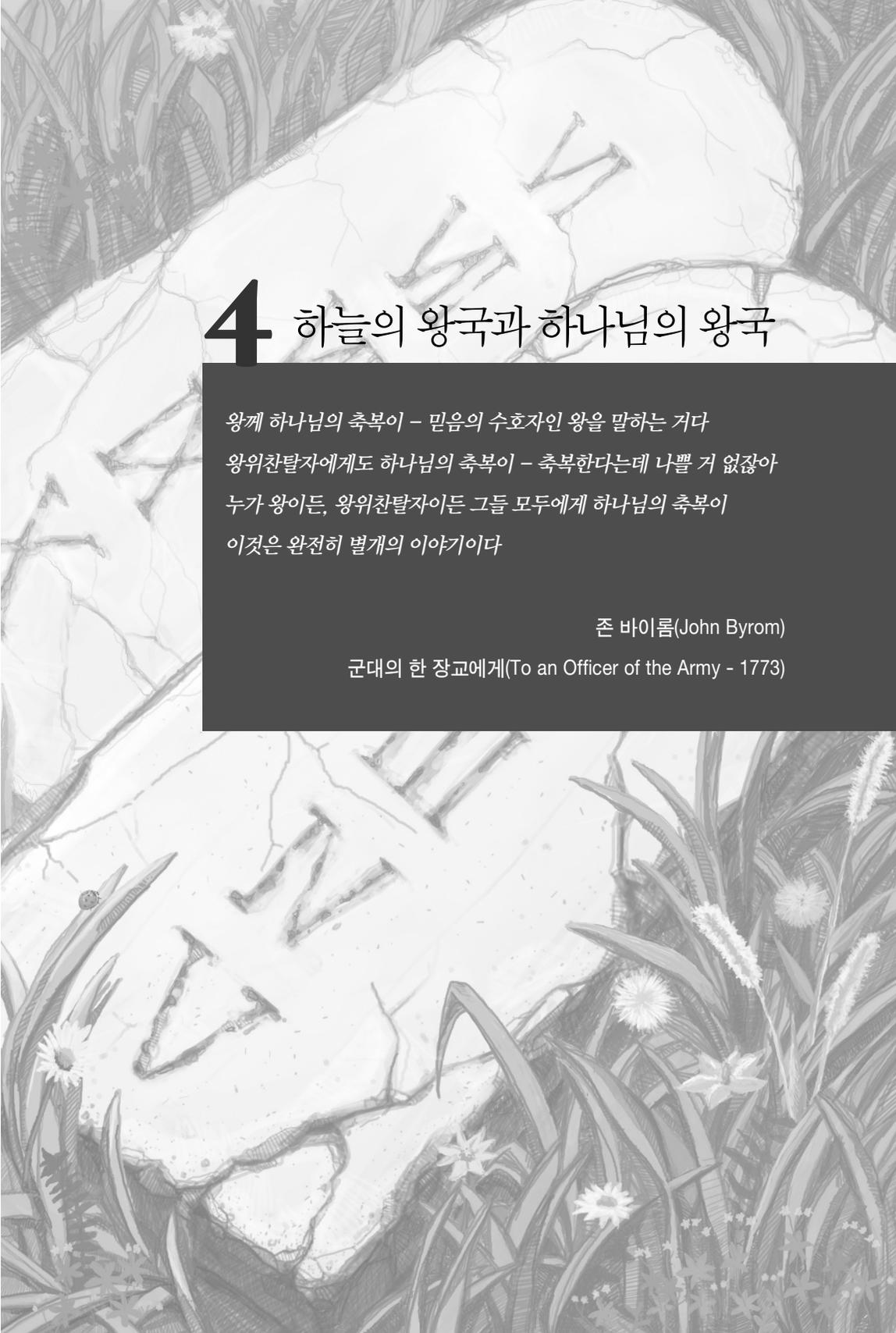
5. 율법: 사람이 인간정부를 무시하고 언약의 약속들을 현재의 삶에서 지키기에는 떨어져 감에 따라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두려움을 정의하는 율법이 나타

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반역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의 마음이 올바로 유지될 뿐이다.

6. 은혜/교회: 경륜을 한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생각을 계속해 보자. 무죄로부터 양심으로 넘어온 그 아이를 생각해 보자. 인간정부와 율법은 그를 유죄로 만들어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 그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했으나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전의 경험들은 그가 죄인이고, 실패만 거듭한 무가치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며 결국 회개하게 만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된다.

제공된 용서와 새로운 삶은 양심, 정부, 언약 혹은 율법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인간을 주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제공하신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왕국: 신자는 주 예수와 같이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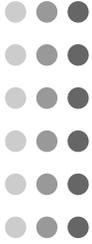


4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왕께 하나님의 축복이 - 믿음의 수호자인 왕을 말하는 거다
왕위찬탈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 축복한다는데 나쁠 거 없잖아
누가 왕이든, 왕위찬탈자이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이다

존 바이롬(John Byrom)

군대의 한 장교에게(To an Officer of the Army - 1773)



제4장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과 교회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신실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늘의 왕국(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을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다. 그 같은 가르침은 교리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과 대치되는 수많은 난제를 양산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늘의 왕국은 이 지구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간이 이 왕국을 통치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통치하신 적은 없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하늘의 왕국의 역사와 더불어 이 주제를 시작하고자 한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청지기직을 주신 게 아니라 지배권과 통치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 1:26-28)

인간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았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그 통치권을 몰수당해, 이 세상의 신이 된(고후 4:4) 사탄이 그것을 차지하고 하늘의 왕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마 4:8-10, 눅 4:5-6). **“그리고 마귀가 말하기를...이 모든 권능을...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권능을 행사해서 왕을 제거할 수 있으나(단 2:21), 에덴동산에서 발생했던 그 권능의 이전(移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한복음 14:30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이 현 세상 제도를 통치하는 권력임을 인정하셨다.

이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두 가지 수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고 사탄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셨다(욥 1장). 이는 아담의 자발적인 권력이양의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나타난 그 ‘시기’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계 11:15).

아담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건설하시겠다는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의 몇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

-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할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 모세를 통해서 그 왕국을 통치할 율법을 전해주셨다.
- 여호수아와 재판관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왕국을 확립하고자 했던 그 땅의 지배자들을 감독하도록 하셨다.

-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분의 왕국에서 통치할 시온산 위에 왕좌를 만드셨다.
-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그 왕좌 위에 앉을 사람으로 임명하셨다.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성경의 역사는 그 왕국을 가져오려고 했던 히브리 민족의 시도를 실패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할 그 왕국의 기초를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실패하셨고 그 왕국을 통치할 두 번째 시도로서 교회를 예비로 준비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바르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변경하신 것이 아니다.

사무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한 반역이 존재했다. 그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을 선택했다(삼상8장). 사람들의 선택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와 그의 후손들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우상숭배와 반역을 점점 더하여 갔다. 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스겔 10:18-20에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세우신 집으로부터 떠나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본 살아

있는 창조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거니시고 언약궤 위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재현하셨다. 이는 성전을 남겨두고(이 구절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언약궤 자체는 들려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으로 다시 언약궤가 올 것이다.

에스겔서 11:22-2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때에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렸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영광은 성전을 남겨두고 기드론 계곡에서 올리브산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세기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셨고,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났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분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마 23:38).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에스겔서 11장에서 보여준 동일한 방법으로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떠났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수의 불을 가지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에스겔서 21:25-27을 살펴보자.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나니 그때에 불법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내가 그것을 거꾸러뜨리고 거꾸러뜨리며 거꾸러뜨리니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왕관은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제거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

들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왕관을 놓기 전에는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그 왕관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왕관이 취해진 지 600년이 지나서(겔 21장),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작은 도시에 한 생명이 태어났다. 누가복음 1:26-3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앞으로 오실 왕이시다.

- 영원한 왕국을 확립하시며
-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며
- 시온 산 위에서
- 약속의 땅 가운데서
-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을 통치하실 것이다.

30년이 지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

나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마 3:1-3) 본문에서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된 단어에 주의해 보자. 2절에 의하면 무엇이 가까이 왔는가? 하늘의 왕국이다. 3절에서 누구의 행로들이 곧게 되었는가? 주님의 행로이다.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이 말한 것은 왕국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요한이 선포한 것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왕좌 위에 앉으실 때 여러분은 왕국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그리고 마태복음 10:1,5,7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왕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전쟁, 정치적 협상, 유엔과 사회 운동이 모두 실패한 이유이다. 패전 이후, 선거, 죽은 교황들, 금메달, 대학졸업, 평화 운동과 교회 예배 이후 사탄이 이 세상의 왕국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를 통치한 다리오 왕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를 통치한 사람들 그 누구도 사탄으로부터 한 뼘의 땅도 취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왔다 갔다 뿐이며 사탄이 권능을 행사했다.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한 사람이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지배권을 올바른 장소로 되돌리는 위대한 권능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한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그는 그것을 선포해야만 했다. 아담의 후손은 타락 이후 모두 파멸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담의 씨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열에도 소망이 존재하게 된다. 처녀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밝아졌다.

“이 일들 후에 또 주께서 다른 칠십 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지역으로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그 안에 있는 병든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눅 10:1,9,11)

두 왕국 모두가 제공되었다. 같은 사람이 이 두 왕국을 통치할 왕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영적인 왕국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7:20-21을 살펴보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왕국이다. 그곳에는 왕관도, 도시도, 영역도, 눈에 보이는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교제하는 내적인 왕국이다.

로마서 14: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

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딤후 6:15)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 1:17) 예수님은 결코 교회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며 교회는 그 왕국의 일부이다.

이제 마태복음 21:42-43로 가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¹⁰

그 시절에는 이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속한 영적인 왕국에 대한 것이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물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유대인을 통치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민족과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교제하셨다. 로마서 9:3-5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11-12에서도 다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

¹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만 한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측면에서와 영적인 영역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왕국을 취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교회에 넘겨주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마 21:42) 이 구절과 베드로전서 2:4-10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자. “참으로 사람들(이스라엘)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되는 돌은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되었다. 주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주신 것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떠난 이후 하늘의 왕국을 통치한 이방인의 권능에 대해 살펴보자.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해 보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었으나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다. 바빌론에 포로로 살고 있는 한 유대인 대언자가 그곳에서 좋은 평판을 갖

고 있었다. 그는 왕의 관리에게 말하여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니엘서 2:25-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대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왕은 그의 이름을 바빌론 언어로 불러 말하였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 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 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 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리 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은 항상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그 날로부터 주의 날까지 연속되는 것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 주시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대,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29-31절) 모든 저자들은 이 형상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은 로마서 1장의 구절들을 생각나게 한다. “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롬 1:23)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빛나는 형상을 묘사한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

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
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31-33절)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서 금속의 가치가 쇠잔해짐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 형상이 계속 진행할수록 약해지며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나감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쇠퇴해지는 것이다. 가치는 줄고 덜 순수해진다. 처음의 것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지나 맨 마지막 것은 가치가 거의 없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 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34절)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
을 즉각 알 수 있다. 어떤 해석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상의 모든 부분을 부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어도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신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35절) ‘다
(together)’ 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다.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진흙의 발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은으로 이루어진 몸통의
모든 것이 진흙의 발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놋으로 이루어진 배와 다리도 같
이 발로 내려갔다. 마지막 상황은 그것의 앞서 내려온 모든 것의 저장소였다.
연합되고 결합된 그리고 파괴된 왕국의 잔존한 결합체는 점점 더 약해졌고 과
거보다 더 쇠퇴하였다. 하나님은 이것 모두를 지켜보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파멸하도록 하셨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2:35-37을 보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
의 자리가 없어졌고…” 이 구절과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흰 왕좌 심판

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계 20:11)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 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이 꿈에 대해 추측할 필요나 근거가 없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그의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이니이다.”(38절) 하나님은 이 왕국을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현 세상으로 정의하고 계신다.

다니엘서 2:39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 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넷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다음에 올 왕국들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다스릴 것으로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왕국들은 이 왕국보다는 못할 것이다. 어떤 이방 권세가 이 예언을 성취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니엘 2:40에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여기서 선포된 것은 넷째 왕국이 이 세상의 민족들을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 왕국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 끊임없이 복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왕국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로마제국을 이 넷째 왕국으로 간주하고 철과 놋의 결합체를 넷째 왕국의 연속선상이나 부활로 논의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히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41절)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왕국은 이전 왕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결합한 것이나 그 권능이나 가치는 앞의 왕국보다 약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과 기술로 인해 과거의 조상이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 부유함과 편리함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세대를 거쳐 계속 세습되어 죄와 사악한 행위들과 악한 고안물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 세상의 타락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 이룬 업적만큼 매우 놀랍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했다.

억압으로 상징되는 놋과 아담 이후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상징하는 진흙과의 혼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흙보다 더 나빠져서 더러운 진흙, 즉 가치가 없고 성가신 흙이 된 것이다.

다니엘서 2:42-4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우리는 마지막 세상 제국의 마지막 기간에 통치 권력은 인간의 씨가 아닐 것이라고 들어왔다. “어떤 그들은(a they)”은 아담의 후손과 섞인 또 다른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노아의 날들 이전에도 발생했고(창6장) 예수님에 따르면(마24장) 이 마지막 날들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2:44-45에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왕들의 시대에(이 두 개의 발 위에 몇 개의 발톱이 있는가? 열 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끝 날에 왕들의 개수는? 열 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열 개와 네 개)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 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까지 이방 왕들의 과정이다. 네 개의 위대한 왕국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이전 시대를 통해 다음 시대로 전해졌으며 선과 악을 포함하는 하나의 왕국으로 전개되었다. 이 각 세대는 이방인의 시대로 불린다.

다니엘서 9:19-27로 이동해서 포로로 잡혀간 대언자가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그들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며,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오후 3시에(민 38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방문하였다.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하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

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네 백성(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네 거룩한 도시(워싱턴 D.C 혹은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다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70주를 정하신 6가지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때에 자신의 택하신 민족에 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정직한 사람에게 이 “다니엘의 70주”는 교회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된 마지막 주에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범법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나의 범죄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
- **죄들의 끝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되었다.
- **사악함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 **영원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영원한 소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
-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참조하기 바란다.
- **성령님께 기름을 붓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상 왕좌로 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음이 명백하다. 이방인의 박해와 통치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

음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 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단 9:25). 이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역사이며 바빌론 포로 이후 시대에 성취되 었다.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 느니라.”(26절) 이것은 다니엘서 2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A.D. 70년 로마시대 에 발생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도시와 성전은 폐허 가운데 지속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오래 끈 전쟁이라고 명명하였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성전을 재건축하지 않을 것이다(행 15:16).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 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27절)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기 이 전에 발생하는 이방인과 여러 혼합된 권력들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부터 사울에 이르는 민족의 왕이시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인간 왕들에 의해 통치를 받았다. 이 왕국은 나누어졌다. 북왕국은 타락했으며 배교의 길로 접어들어 결국 갈데아 민족에 복속되었 다. 남왕국은 몇몇 선한 왕들로 인해 한 동안 명목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 였으나 결국은 그들도 배교하여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났다(겔9-11장). 왕권 은 옮겨졌고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생활을 겪게 되었다. 포로기간 하나님은 이방인의 권능의 미래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

시해 주셨다.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모든 언약에 있어 중요한 점들을 계시해 주셨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셨다.

예언의 첫 분리가 끝나는 시점에서(483년) 메시아는 끊어져 나갔다. 그리고 요한은 왕국을 선포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선포하셨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12제자와 70사도들도 선포했다.

이 왕국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에게 왕국이 도래했음을 말하라.

그러나 그 왕은 거부당했으며 결국 처형되었다. 고레스 왕이 바빌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칙령을 선포한 지 69주가 지나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리라. 백성이.”**(단 9:26) 그리고 복음 선포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셨다고”** 말하고 있다(행 2:23).

이 예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한 주가 남게 된다.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사건들과 연대기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이 시간(다니엘의 70주)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전에는 간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의 70주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멈춘 것이다.¹¹ 그

¹¹ 이것이 어느 누구도 휴거나 주님의 재림시점을 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시계는 멈추어져 있다. 날, 주, 월 그리고 연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시간을 정하신다. 왜 하나님은 교회와 관련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는 동안 이 세상의 왕국은 철과 놋쇠의 이방권력에 의해 통치된다. 이 왕국은 신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비싼 진주”인 것이며 이스라엘은 들판에 감추어진 보물인 것이다(마 13장).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남아있는 7년의 시간은 평화와 번영으로 시작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세상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마침내 잘 될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그 주의 중간에 짐승이 나올 것인데 이 짐승은 성경에서 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목적은 아브라함 자손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산속으로 대피하여 살아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의 끝까지 견딜 것이다.

이 7년이란 기간을 통해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단 7장).¹² 7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왕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읽어보자.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9절) 이것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묘사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불 같은 시대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민이 그분 앞에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에 내가 그 뿔이 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단 7:10-12)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는 이 뿔이 짐승임을 발견하였다.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에 내가 바라

¹² 저자의 <Fascinating Truths>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10-12절) 이 장면이 정사와 권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엡 6:10-18). 그것들은 이 세상의 신의 지도 아래(고후 4:4) 이 세상 왕국들을 통치하였다(눅 4장).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단 7:13-14)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14절) 이것은 올리브산 위로 다시 오실 주님에 앞서 둘째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습이며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지상 왕국의 통치권을 받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보상을 주시면서 선언을 하신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계 11:15)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때”(렘 30:7)가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를 경배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외칠 것이다.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계 11:17)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마 28:18)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것은 당연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엡 6:12)의 통치를 끝내실 것이다(단 7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국은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계 11장).

아담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다. 사탄은 그 통치권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그분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미가 5:2절을 통해 시간 여행을 해보자.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이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구절에 표시된 세 가지 시제들(tenses)에 주의하라. 하나님이 베들레헬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날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또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은 자신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온 왕의 모습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만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 성령님은 이 표현을 마태복음으로 제한하셨을까?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직접적으로 그 민족과 관련이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이 말라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마태복음은 역사를 메시아의 끊어짐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전까지는 구약을 모아놓은 것이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계보로 시작한다. 누가복음은 아담의 계보까지 거슬러 갔으나 마태복음은 왕좌로부터 그 출발을 한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제공된 왕국을 선포하며 침례인 요한과 주님 자신이 회개에 필요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들이 나온다(마 5-7장).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였으며 예수님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왕은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통치될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결국 왕은 거부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으로 통치할 그 날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즉 넷째 짐승의 시대에 처음으로 오셨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첫째 오심과 둘째 오심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점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국인들이 서양문명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회교도들이 그 역할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온전한 교리를 대신해서 두려움과 감정을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팔기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첫 번째 오실 때 그 권능의 왕국과 두 번째 오실 때 권능의 왕국은 동일하다.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가이사(Caesar) 외에는 왕이 없다”(요 19:15)고 말함으로써 이 지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통치권은 거부당했다. 그들의 선조들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요구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왕을 원했다. 그들은 약한 인간 군주를 원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질타했다.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사도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왕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의 군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지상 위에 전능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죄를 멸하고 진정한 사랑

이 넘치는 통치를 이루러 오셨다. 예언자의 선포를 살펴보자. 킴레인 요한은 마태복음 3:2에서 외치고 있다.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32번 사용되었으며 다른 신약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왕국과 그 왕좌는 유대인의 것이며 그 왕국의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이다.¹³

마태복음 10:1, 6-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약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마가복음 끝에도 예수님은 이 제약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이 제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제약은 유대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하늘의 왕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가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 제약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제약은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이 하늘의 왕국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¹³ 이 구절은 자유주의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면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언약을 오해함으로 유대인들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제공되었다. 하늘의 왕국이 어느 시점에 제공되어 그 계획이 거부되고 실패로 돌아가서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제공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세대주의 해석이다. 주님과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시에 전파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을 받을 자격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전파하지 않았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발을 위한 길을 곧게 하였다. 그 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그 민족의 죄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했다. 몇 사람들은 이 설교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위선자 혹은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였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였다(마 3:8). 단순히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한 것이다.

마태복음 9-11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왕에 대해 증오심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11:20-24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거부한 그들을 책망하셨다.

마태복음 12장은 주님이 제공하신 그 왕국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으며 요나의 죽음, 장사와 부활을 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한 여성이며 이방인 군주인 시바의 여왕의 예를 따르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말로 그들에게는 모욕적인 것이었다. 요한의 설교에 따라 그들이 변한 모습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며 부정한 영은 돌아가고 그들의 상태는 과거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화를 내며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며 더 이상 나의 민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

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나? 누가 내 형제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마 12:46-50)

이 시점부터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늘의 왕국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신비에 감추어진 형태로 바뀌었다.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경우,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에게 왕관을 씌우거나 혹은 그분의 부활 이후 두 번째로 왕국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비유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 즉 오랫동안 왕의 부재와 이방인 찬탈자에 의한 왕국의 타락을 예언하고 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복음서는 넷째 복음서와는 구별된다. 마태복음 3장에서 12장에 이르도록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거부당했고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주님은 앞으로 올 교회시대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메시아와 그 왕국이다. 이것이 이제껏 보인 전부이다. 교회는 언급되지 않았고 신약성경의 조명을 통해 구약을 살펴보는 경우에 한해 우리는 어떤 암시를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다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답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

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행 1:6) 교회는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전파하던 주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승인하거나 혹은 유대인의 왕국 거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후 왕국 제안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잘못된 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존재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행 2:23) 그러나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에서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왕으로 제시하셨고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제안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다. 왕국 제안은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이 그 제안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교회시대에서 하늘의 왕국의 상태에 대한 개괄을 보여주는 7개의 비유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그것들을 신비(11절)로 지칭하고 계신다. 신비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알려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사실을 지칭하고 있다. 주님

께서 과거에 명백히 사람들에게 말씀해주신 것과는 달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듣는데 어리석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형태의 비유를 통해 진실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분께 진리를 구하도록 하셨다. 그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들에게 그 신비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 빛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남겨졌다.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이 구절과 다음 16-17절을 비교해 보자.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 왕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 유대인은 이 비유들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한 원칙을 발견한다. **“구하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이 기간이 다니엘 9장에서는 69번째 주와 70번째 주 사이로 묘사됨)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기간을 묘사하는 다른 두 개의 일곱이 성경에 존재한다. 이것들은 일곱 명절들(레위기 23장)과 일곱 교회(계 2-3장)들에 대한 메시지다.¹⁴

예수님께서서 마태복음에서만 전파한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며 이스라엘에게 글자 그대로 제공되는 왕국, 즉 언젠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때에 그들이 누릴 왕국이다. 누가복음과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¹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2-3장의 내용을 저자의 <성경적 종말론>에서 상세히 비교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다. 이 두 왕국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한 왕국에 대한 진리는(마태복음에서 설명된) 다른 왕국(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에서 나타난 진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두 왕국을 같게 만들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14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8:16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이 두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향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예가 마태복음 19:23-24에 나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누가복음 18:24-25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떤 원리가 두 왕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두 왕국이 동일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 만일 여러분이 세 개의 원을 하나는 다른 원 안에 그리고자 한다면, 가장 안에 있는 원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고 성령님에 의해 한 몸으로 침례 받은 교회일 것이다. 둘째 원은 모든 신자들, 즉 이 세대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포함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밖에 있는 원은 하늘의 왕국이 될 것이다. 하

늘의 왕국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묘사된 것처럼, 거짓으로 혹은 진심이 없이 고백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들은 이 지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거나 혹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처벌을 피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는 못했다.

마태복음 13:41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잠시 동안 하늘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이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있었으나 하늘의 왕국 밖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국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가라지와 날짐승 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일곱 비유들은 최소한 2,000년의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앞의 4개 비유에서 사탄은 매우 활동적이다. 첫째 비유에서 사탄은 올바른 씨를 취해 간다. 둘째 비유에서 사탄은 자신이 소유한 거짓 씨를 뿌린다. 셋째 비유에서 사탄은 그룹 안에서 거하고 있다. 넷째 비유에서 사탄은 누룩을 섞는다. 처음 두 비유들에서 우리는 왕국이 개인들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두 비유들에서는 한 그룹이나 모임으로 왕국을 보게 된다.

이 네 개의 비유들은 주님께서 대중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이것은 대중을 위한 것이었다. 구원받은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리와 허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된 것이다.

뒤의 세 개의 비유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낸 후에 한 집(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비유들은 왕국의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비유들에서 사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비유들은 하늘의 왕국을 다루고 있으나 동

시에 교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비유는 씨뿌리는 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3-9에서 보이고 18-23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비유에서는 씨뿌린 것에 대한 네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는 단 한 가지만이 성공적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열매의 양에 대한 정도를 발견하게 된다. 명백한 교훈은 이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세 번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첫째는 사탄에 의해서 둘째는 육신에 의해서 그리고 셋째는 세상에 의해서 방해 받았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비유(24-30절)는 교회시대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다(37-43절). 불신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과 믿는 자가 세상과의 분리 없이 사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눈에 보이는 왕국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명백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것이다. 교회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가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버려져서 불타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를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간증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비유를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그리스정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종교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하며 낙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지상 왕국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 종교는 또한 유아세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최종권위를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들을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이 세상 끝 날에 그들을 불태울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도 매우 바쁘다. 이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왕국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모든 주요 종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불태우거나 고문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버려 두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리지를 이 지상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성경적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표들이 신자들을 모아서 교제를 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보이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첫째 비유처럼 이 비유도 교회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왕국시대를 도래케 할 것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비유는 겨자씨 비유로, 한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머무는 큰 나무로 변한다는 것이다(마 13:31-32). 이 작은 씨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이상하게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세상이 바뀐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처음 두 개의 비유들의 가르침과 바로 모순이 된다.

겨자씨는 세상으로 퍼지는 확장을 의미하지만 신자들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왕국은 세워지는 것이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가 언급될 때마다, 그들은 대개 사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비유에서 이 논리를 주장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을 통해 계속 확장되고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친 이 왕국 교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

나 실상은 이름만 신자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극동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인간의 삶은 나아진다. 식량원조, 난민수용소, 병원, 적십자, 무상원조와 다른 수천 가지의 선한 행위들이 타인을 위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 몰몬교 혹은 다른 수천의 이교도들은 이 나무 가지 위에 거한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 없이 그들은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 여기 저기 날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왕을 거부하면서도 왕국을 도래케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상한 행위들은 짐승이 통치할 때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겨자씨 비유에서 나무는 자신들이 회교도나 불교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가르침을 수용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겨자씨가 밭에 뿌려졌다고 말씀한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세상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원에 뿌려졌다고 묘사한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마 13:38), 이를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시야를 얻게 된다. 이것은 세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기독교적 철학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마가복음에서 세상은 종종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설명된다. 누가복음에서는 정원(garden)은 보다 작은 계시인(a smaller revelation) 성도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누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마 13:33) 주석가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될 때까지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비유들에서 가르치는 것

과 모순이 된다. 나무는 왕국에 대한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룩에서 우리는 내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나무에서 우리는 양(quantity)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질(quality)을 보게 된다.

여기서 넷째 비유의 누룩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넷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경고하신 어떤 여인의 더러운 행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인은 가르치고 유혹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음식에 누룩을 섞고 있다. 이 두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의 부패이다. 누룩은 음식을 부패케 하는 요소이다(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은 유월절 기간에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교리가 건전한 교리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부패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마태복음 13장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계시록 2장에서는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말씀한다. 이 여인은 이교도 문화에서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져온 장본인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지는 않았으나 곧 이스라엘 민족은 그녀의 우상과 거짓 신들을 경배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교회와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성과고는 모순되는 교리들을 가져왔다. 결국 그 교리들은 퍼져서 전체 교파가 속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 결과 소수의 진리를 아는 신자들이 분리해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견뎠고 이 과정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2,000년 동안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약성경의 교리를 부정한다. 처녀 탄생의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섬기라고 한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친다. 새로운 출생이 유아 세례와 관련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왕국의 언약이 환경운동인 것

처럼 가르친다. 낙태 반대가 복음 전파인 것처럼 가르치고 성적 타락을 경고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나 그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음식이 존재하나 그것은 누룩으로 가득 차있다.

갈보리 이후 사탄은 지하로 들어갔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단어나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 이 시대에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왕국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고후 4:4)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다(WWJD, Promise Keeping, 목적이 이끄는 누룩, 설교자가 아닌 정신과 의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다음 비유는 마태복음 13:44에서 보인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밭은 세상을 의미한다.)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니엘의 예언의 마지막 두 주 사이에 이스라엘이 흩어진다.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 하셨다. 사탄은 우리 주님에게 만일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산 것이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밭을 사서 언젠가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그들 선조에게 약속했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죽으셨다.

히브리서 12: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떨치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않으셨느니라.” 그 기쁨의 한 부분은 밭(세상)에 숨겨진 보물(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며 약속된 왕국을 이룩하는 것이다.

45-47절에서 발견되는 진주의 비유도 이와 흡사하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캐내어져 주인이 그것을 전시하게 된다.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바다는 사람, 민족 그리고 국가를 의미한다. 교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진주(모든 성도의 연합체, 고전 12장, 엡 4장)는 민족들 가운데서 취해져(행 15장), 그 주인(엡 1장)이 전시를 할 것이다. 그 진주는 주 예수님 자신의 소중한 피로써 산 것이다(벧전 1:18-19).

비유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13:47-50)

우리는 바다가 이방 민족을 의미함을 알고 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은 개인들을 민족에서 건져내어 모으고자 했던 시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비유는 교회시대를 넘어서 우리를 다니엘의 마지막 주로 인도한다. 이것이 우리가 본 것이다.

- 모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으로 이어졌다.
- 인간이 아닌 천사들이 모았다.
- 이 사건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만 적용된다.
- 모인 몇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나 다른 몇 사람들은 파멸되었다.

이것은 대환난을 통과하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어떤 역사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결혼식에는 초대되었으나 올바른 복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비유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마 22:11).

이 구절은 이사야 66:19-20과 동일 선상에 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아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거듭나지 않는 것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마 10:22, 24:13)는 구절은 몇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환난시대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육신의 구원을 의미한다(마 24:22). 그런 생존자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과연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향유할 수 있는가? 그물로부터 건져진 몇 생선들은 하늘의 왕국 원칙에 따라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물로부터 건져진 다른 몇 생선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왕국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주의한 성경 학도들이 빠지게 되는 혼란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기 전에 휴거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분과 같이 통치하러 올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죽는다면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공부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항목은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혼란을 주는 구절이다. 마태복음 16:18-19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의 왕국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왕국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거듭남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주님을 포기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책망하셨다. 그러나 그는 그때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가 된다.

유대인들은 요한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이니이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로 그들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시대 끝에 남게 되는 모든 사

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을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하였다. 베드로는 회개한 유대인들을 지상 왕국으로 인도할 그 열쇠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왕국을(24장) 취하시는 주님에 앞서 나오는 표적들과 그 왕국이(25장) 나오는 시점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잘 알려진 구절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지 않고 <성경적 종말론>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책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 4장과 12장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발견된다.

마가복음 3장은 주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인간의 나머지 육신은 정상이며 그의 마비된 손이 그를 불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을 대표한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에게는 문제가 없다. 성전도 그리고 희생 제물도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켰으며, 결국 그들의 종교에 서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렸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3장에서 충돌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사람은 치유를 받고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그 모습에 등장했다. 마가복음 3:3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때에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셨다. 육신적으로는 그분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우리

가 여기 있으니 어서 나오시오.” 예수님은 안에서 말씀하셨다. “아니오,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이리로 들어오시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여기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 그 길이 분리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기로 결정하시고 영적인 진리들을 비공개적 영역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마가복음 3:32-35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나?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나라, 하시니라.” 주님은 영적인 관계를 위해 육신적 관계를 끊으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땅 위에 앉으셔서 유대인 무리로부터 분리되신 모습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자.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을 생각나게 한다.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따라서 마가복음 3장의 끝과 4장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분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가복음 4:2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이 시점까지는 어떤 비유도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에 공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밀(private)이 되었다.

마가복음 4:10-1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께서 홀로 계시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쭙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그분의 가족과 민족이 아니고 믿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가족과 민족)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육신적으로) 알지 못하고(영적으로) 듣기는 들어도(육신적으로) 깨닫지(영적으로)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한 사실을 거부한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그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면 그 어떤 이스라엘 자손도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켰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은혜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따라서 과거에 계시된 진리는 그들로부터 철회되었다. 빛이 거부된 이후 어두움이 찾아왔다.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12:46-50에서 볼 수 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

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비슷하게 보이는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가복음 3:35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2:50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라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유대인의 책이며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 민족과의 관계를 보게 된다.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이방인의 책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에 결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이 있을 뿐이었다.

요한복음 3: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 기적들은 유대인을 납득시켰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거부하였다.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영적인)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육신적으로)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영적인).”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영적인 출생인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다. 그 어떤 육신적 출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7:20-21을 살펴보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성경의 수백 군데에서 여러분은 하늘의 왕국에 관해 관측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거듭난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며 믿는 자 안에 그 왕국이 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가복음 4:11과 다음의 마태복음 13:11을 비교해 보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한 곳에서는 하나의 신비라고 되어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복수의 신비들 이라고 되어 있음이 보이는가? 하늘의 왕국은 신비가 아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장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두 주 사이(68째 주와 70째 주)에 존재하는 교회시대의 기간에 대해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매우 생소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하늘의 왕국은 전혀 신비가 아니나 그 왕국에 대한 어떤 특이한 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왕국은 구약에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것이 신비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다.¹⁵ 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

¹⁵ 통상적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제외한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 지칭한다. 그 이유는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주

동일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들은 매우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마가복음 4:14-20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영적인 왕국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마는 삼십 배, 열마는 육십 배, 열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이 왕국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첫째 진리는 그 왕국에는 칼이나, 총, 무기, 경계, 수도, 왕, 통치자, 돈, 부자 혹은 조직 같은 것은 없고 인간이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본부나 정부조직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혹은 군사적 모습이 없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으며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이 신비라고 생각하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어보라. 그 왕국은 경계들과, 땅, 율법, 왕들, 계명, 축제일과 제물에 대한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보면 교회시대의 모든 날은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한 축제가 있는데 이는 주님의 만찬이다. 다른 거룩한 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신약교회에는 어떤 왕이나, 왕자, 통치자

혹은 군대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이다. 이 왕국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비인 것이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사업) 밑에나 침상(가정)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막 4:21) 계시록 1장에 의하면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내서 따로 분리되어 살도록 보내지 않으셨다. 그분의 의도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22절)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 것처럼”** 여기서도 등잔대의 불빛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비추는 것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23-24절) 여기에 경이로운 약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9권의 성경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 모든 빛을 거부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주님은 만일 원래 가지가 원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접붙인 가지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진리는 원하는 자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할 때에 그 씨가 돌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26-29절)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찰하고 걱정을 기울이는 것은 그 씨의 성장과 발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만일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잘 자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시들어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러분은 혼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한 인간을 믿도록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은 경이롭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인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짜 결과를 만들고자 할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과와 진정한 회심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말씀의 권능으로 가능하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으나 성장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다(고전 3:6-7).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막 4:30-32) 이것은 매우 산뜻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매우 현저하고 영광스럽다. 여기서 퍼지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다. 마태복음 13:32에서 본 것처럼 겨자씨 그 자체는 나무로 성장할 수 없다. 자연 상태로는 그대로 있지만 땅을 통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 나뭇가지들은 예루살렘의 높은 곳으로부터 퍼져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그리고 호주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정치적 운동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며, 복음을

군대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한 그 모습대로 유지된다.

그 신비는 2,000년 전 한 조그만 도시에서 어부, 세리, 배우지 못한 사람, 여자와 목수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에 대해 듣게 된 것에서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그 말씀은 계속 전파됐다. 그 말씀은 도시에서 도시로, 대륙에서 섬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전파됐다. 위로는 북극지방으로, 아래로는 아르헨티나 맨 끝까지, 아프리카 정글로부터 런던에 이르기까지, 몽골리아 정상에서부터 아라비아 사막까지, 보통 남자 여자는 겨자씨가 좋은 토양으로부터 나타난 그 첫 날부터 행해진 것들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또 다른 차이를 인지해야만 한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IN) 깃들인다**”(마 13:21)고 말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UNDER THE SHADOW)에 깃들인다**”(막 4:32)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성경은 경이롭지 않은가! 하늘의 왕국에는 새들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새들이 나무 밑에 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낮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막 4:29)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라지의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세상 끝 날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면 수확만이 있다. 모아서 불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분노를 만들거나 던져져 버리거나 가짜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거짓 회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왕국에서는 거짓 고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영적인 왕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적인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들은 거듭났고 따라서 어떤 사람도 불태울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3:24-2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마가복음 4:26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으니**”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밭을 돌보는 것은 인간들(복수)이다. 그들은 명백히 자신의 임무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 땅을 돌보는 것은 한 사람(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다른 차이점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고난에서 발견된다. 마가복음에서 그들은 “**고난이나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에(4:17) 마태복음 13:21에서 그들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된다.

이 차이점들은 그리 놀란 만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비유를 해석해 주심으로 우리는 각 비유에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었다. 마태복음 13:19에서 씨 뿌리는 자는 “**왕국의 말씀을 뿌리나**” 마가복음 4:14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적혀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에 대한 주된 주제는 실패임을 고려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와 관련이 있는 모든 비유는 씨 뿌리는 것으로부터 성공을 약속 받는다. 이 비유 가운데 어떤 것도 결과가 모자를 것이라는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

이 비유들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잃는가에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13:15에 나온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에 무디어지면 복으로부터 떨어

져 나간다고 묘사하고 있다. “내가 그것들을 고치려 함이라.” 그러나 마가복음 4:12에서는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현저한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각 왕국에 대해 알고 있는 진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두 개의 예를 통해 이 차이를 명백히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1:17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6:7을 인용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13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여기서는 “민족들”이 삭제되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유대인의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찰해 보자. 마태복음 16:27-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맞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아들의 왕국이며 그분이 다시 오신 후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가복음 8:3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나 거기에는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은 있으나 왕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누가복음 9:26-2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아버지와 천사와 더불어 아들도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반면에 하늘의 왕국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통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마태복음의 계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 이후 엘리야가 오는 것에 대한, 즉 구약의 마지막 언약과 연결되는 한 가지 질문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마가복음 4:1로 돌아가 보자.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여기서 주님은 가족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 민족들, 친척들, 외국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은혜의 시대에 민족들 가운데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게 된다. “바로 그 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막 4:35-37)

그들이 예수님과 항해하자마자 다른 편에서는 폭풍이 발생했다. 모든 것

이 편안한 항해가 아닌 고난과 역경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 진리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 작은 배는 폭풍에 견뎌지만 힘든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인간이 씨를 뿌리고 그가 잡든 비유를 기억해 보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막 4:38-41)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심하며 생존할 수 있는가를 두려워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폭풍들을 알고 있었고 교회 구성원들은 배가 항해를 시작한 후에 그 안과 밖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다. 그 배는 계속 항해를 했다. 그분의 시간에 예수님은 배와 선원 모두를 잠잠하게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의심을 할지 모르나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항해한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른 편으로 옮겨졌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루시는 엄청난 방법을 볼 수 있다. 22절에서 회당의 한 치리자가 나와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린다. 그에 계는 죽음 직전에 있는 한 딸이 있었고(23절) 예수님은 그녀를 도와주셨다(24

절).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25절). 그녀는 의사들을 통해 치유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고통만 당하였다(26절).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고 마침내 치유를 얻게 되었다(27-28절). 그녀는 치유를 받았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효력이 나아가 그녀에게 전가되었다(29-30절).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으며 주님을 통해 위로 받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34절). 그리고 그녀는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님이 유대인을 다루시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 소녀는 이제 죽었고(35절)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35절).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불러 믿음을 가지도록 명령하셨다(36절). 그분이 집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는 큰 슬픔과 소란이 있었다(38절). 그분은 그 무리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39절). 죽음이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단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비웃었고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조롱했다(39절). 예수님은 그들을 그 현장에서 내쫓으셨다(39절).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거하시며 그 소녀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현장에 동행하셨다(40-41절). 권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죽은 자로부터 그녀를 일으키시고 그녀는 다시 한 번 세상을 걷게 되었다(42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고려해 보자. 그들의 민족적 죄와 율법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다. 그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한 몇 몇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민족을 도와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이 이야기 중간에 온전하지 않은 한 여인(교회의 모습을 예표함)이 끼어들게 된다. 아담의 아들들은 매우 고통 받았다. 그들은 잇따라 어떤 중

교와 철학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부당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들은 가로막는 대중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온전케 만들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치유의 기적 가운데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나온 효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나 오직 교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제공되었다. 오직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아버지와 같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 위로 받고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여인에 의해 중단되었던 유대인과 주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 그 민족은 이제 죽은 자로 여겨지며(잘려져 나감-로마서 11장)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주님은 회중의 무리에게 들어가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거절했다. 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은 그들을 무대에서 쫓아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거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실 때 그들과 같이할 것이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로부터 신실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겔 37장) 그들은 다시 한 번 지상에서 걷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12년 동안 아팠던(25절) 사실을 기억하라. 따

라서 유대인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기간에 이방인들은 소망 없이 그리고 주님과 언약 없이 살아왔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는 다섯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이다. 이 왕국 안에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모든 창조물이 존재한다. 그것은 천사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누가복음 13: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믿음으로 들어온 구약시대 성도들도 존재한다.

히브리서 12:22-2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따라서, 천사들과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온전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적 왕관과 민족들로 제약되어 있다. 결국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예수님께 속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요 3:3-7).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은 적이 결코 없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7-8은 하늘의 왕국에 자리를 잡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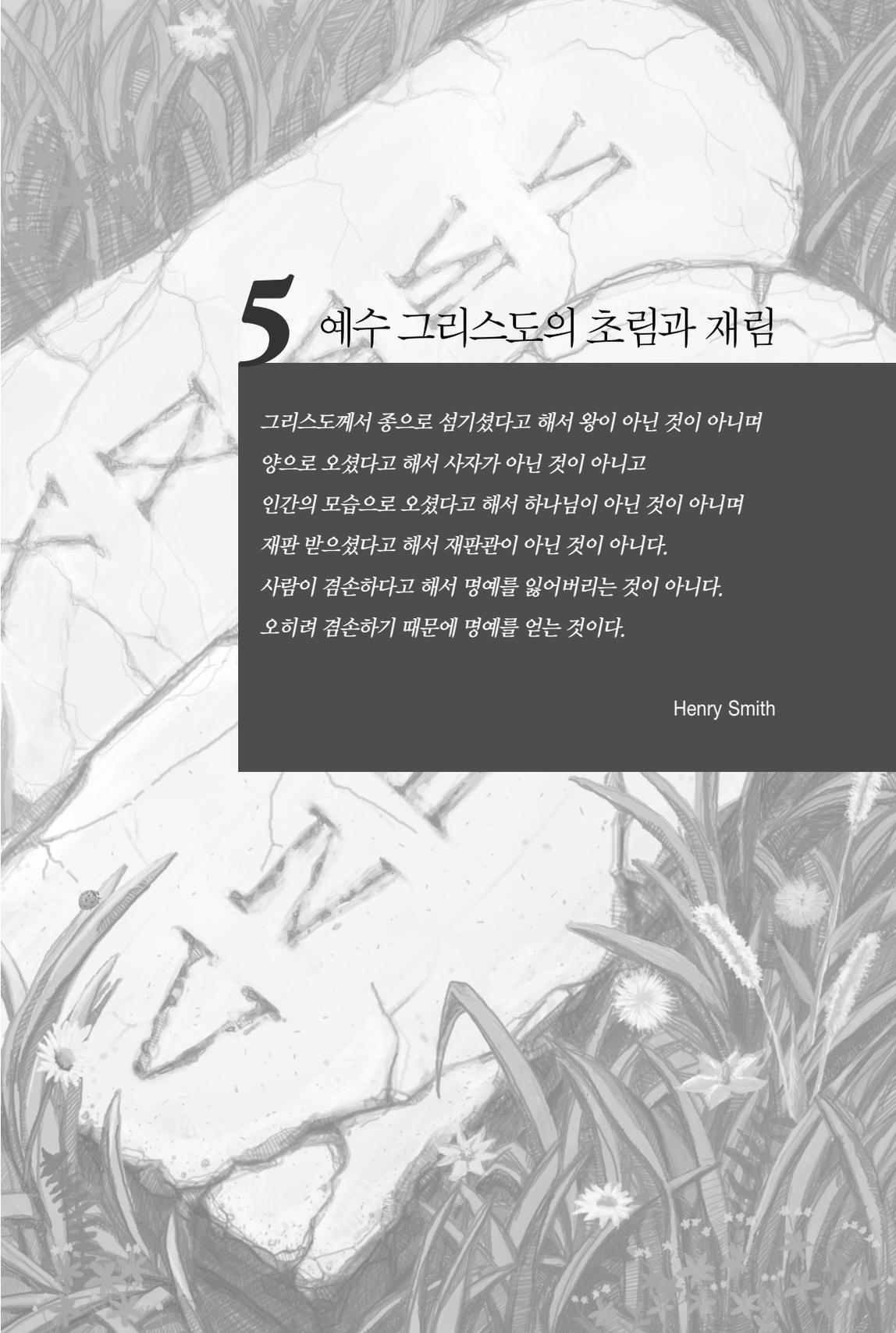
의 모래 같으리라.” 이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살았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

셋째,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두 왕국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왕국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마 11:12)

넷째, 하나님의 왕국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동반하지 않는다(눅 17:20). 그것은 내적이며 영적인 왕국이다(롬 14:17).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통치하려 왕이 오시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다섯째, 하늘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과 합쳐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4-26을 살펴보자.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니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사라지면 이 두 왕국을 따로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섬기셨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이 아니며
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며
재판 받으셨다고 해서 재판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겸손하기 때문에 명예를 얻는 것이다.

Henry Smith



제5장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딤후전 3:16) 동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행 1장, 스가랴 14장).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적 구절들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만한 때가 이르러(갈 4:4), 창조주(벧전 4:19)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눅 1:31)라 불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다.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뒤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이 지난 후에(행 1:3),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히 12:2)으로 올라가셨다(행 1:9-11).

다음 구절은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심을 묘사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눅 24:50-53).¹⁶

사도행전 1:9-11에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

¹⁶ 현대어 성서에서는 “하늘 위로 올려진다” 라는 부분과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 라는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경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성서들(예를 들어 NIV 와 NASV)의 독자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너는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분께 경배하라”**는 구절을 삭제한 소위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책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중요한 문장을 제거한 것이다.

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올리브산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생생히 보여졌으며 훗날에는 반대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부활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가심과 같을 것이다. 주님의 돌아오심은 주님의 떠남과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첫 번째 오셨던 것과는 다르게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영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비유적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 혹은 부흥의 지도자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는 형태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입고 있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문자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슥 14:4)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슥 12:10)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눅 13:6)¹⁷

주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성경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7:55에서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으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스테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사도행전 1장과 비교해 보자) 둘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님은 걸어서 동굴 속에 숨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환상을 통해 현혹한 것도 아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몰래 가신 것도 아니다. 스테반은 하늘을 쳐다봤고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 계셨던 것이다.

히브리서 1:1-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오른편의 왕좌로 돌아가셨다.

골로새서 3:1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

¹⁷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스기라 주석>을 참고하라.

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 시대에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은 디도서 2:11-13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즉, 주님은 현 세상에서 떠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앉아 계신 곳과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이 오시는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 14:18) 그러나 삼위일체의 교리를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16을 보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우리는 다른 위로자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동일한 위로자” 혹은 “내가 위로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우리는 그 위로자가 예수님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느니라.”(요 14:9)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 14:18)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천사들도 “이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행 1:11)이라고 말한 이유도 알게 된다.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취가 아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오심의 방법이 다르다. 오순절에 오신 것은 성령님이지 육신이 아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셨고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육신 안으로 거하셨다. 그것은 올리브 산 위에서 계셨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셋째,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수 없이 언급했고 이것은 항상 미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누구도 오순절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한 그 어떤 사건들도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들의 그 어떤 것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된 오순절 날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어떤 사건들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았고 오순절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3-16) 이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순절에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고전 15:51-53)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빌립보서 3:20-21을 살펴보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명백히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타락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

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29-30).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계 1:7)

명백히 이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눈이 주님을 보지 못했으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땅의 모든 지파가 주님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곡하지도 않았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유주의 집단과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주장은 죄인의 회심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주장 뒤에는 몇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이 되는 신자들의 몸 안으로 들어와 거주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골 1:27)

우리는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한 부분을 다른 진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죄인의 회심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가 사실이다. 첫째, 회개는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 11:28)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 5:40)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론에 반대하는 둘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반박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죄인이 거듭났을 경우에 일어난 것은 없다. 한 사람이 거듭난 순간에 영광스런 몸을 입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순간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면 어느 누구도 간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상상해 보자.

죄인의 회심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발생할 것이라는 사건들에 대한 모든 주장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설명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영터리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한 두 개의 성경구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무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잘못된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성경적인 가스펠송과 설교 중에 이런 오류를 은연중에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21:21-24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를

¹⁸ 물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역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주님의 죽으심과 오심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주님께서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죽음과 자신의 지상 재림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내가 막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 성경적 관점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이다. 죽음은 주님의 오심이 아니다. 믿는 신자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2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디모데후서 4:6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이 떠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고 계신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8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살아서 남은 자들(살전 4장)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휴거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스데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행 7:56) 예수님께서서는 스데반이 있던 장소로 오시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스데반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스데반이 주님께 가는 것이었다.¹⁹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약속되었던 그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주장은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시점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주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재림을 의미하신 것이다. 이 사건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A.D. 70년경에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는 했다.

예언되었던 것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예언의 성취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혼돈스러웠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1-3을 보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

¹⁹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서 계시며 스데반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기를 기다렸다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 첫째,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나 암시가 전혀 없다. 둘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회심하려고 했다는 그 어떤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 셋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시대가 존재하지 않고 초림 후에 바로 유대인의 회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왕국의 확립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왕국의 비유들은 거짓이 될 것이다.

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여기서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2,000년에 걸쳐 이 질문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빛은 피로 물들며 별들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모습은 A.D. 70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22장을 살펴보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단어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20년이 지나서 감옥에 있던 한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 도시는 A.D. 70년에 파괴되었다. 요한은 A.D. 90년에 밧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광.”(계 1:4)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계 1:7)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계 2:25)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계 3: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계 22:12)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 22:20)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20년이 지나서 기록된 계시록에서 7번에 걸쳐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거짓 주장은 기독교의 전파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이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가 지상의 왕국을 확장하며,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왕국의 점진적인 전파를 가르치기보다는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다시 오시는 순간 그분의 권능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방금 계시록에서 읽은 구절은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태복음 24:2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36-50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라. (주님의 오심은 갑작스럽고 즉각적이며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빠르고 실수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20세기에 이 왕국을 이루려는 교회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그룹들이 예정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10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계시록 3:3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모든 성경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확대가 왕국을 도래케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한다는 점에 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어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2-3)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 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 로다.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 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살후 1:7-10)

이 날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한 날이 아니다.

말라기 4:1-2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 는 날이 임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 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 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 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교회가 왕국을 도래케 한다는 주장은, 복음전파의 결과로 온 세상이 회심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더해서 인류 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1,000년 동안 복종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재림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정신 나간 주장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은 사악함이 절정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노아의 날과 같고 룻의 날과 같다. 누가복음 17:26-32, 창세기 6:5-7, 창세기13:13, 누가복음 18:8, 누가복음 21:25-27 그리고 다른 성경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의 환 경은 죄로 가득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또한 이 세상 전체가 회심할 것이라는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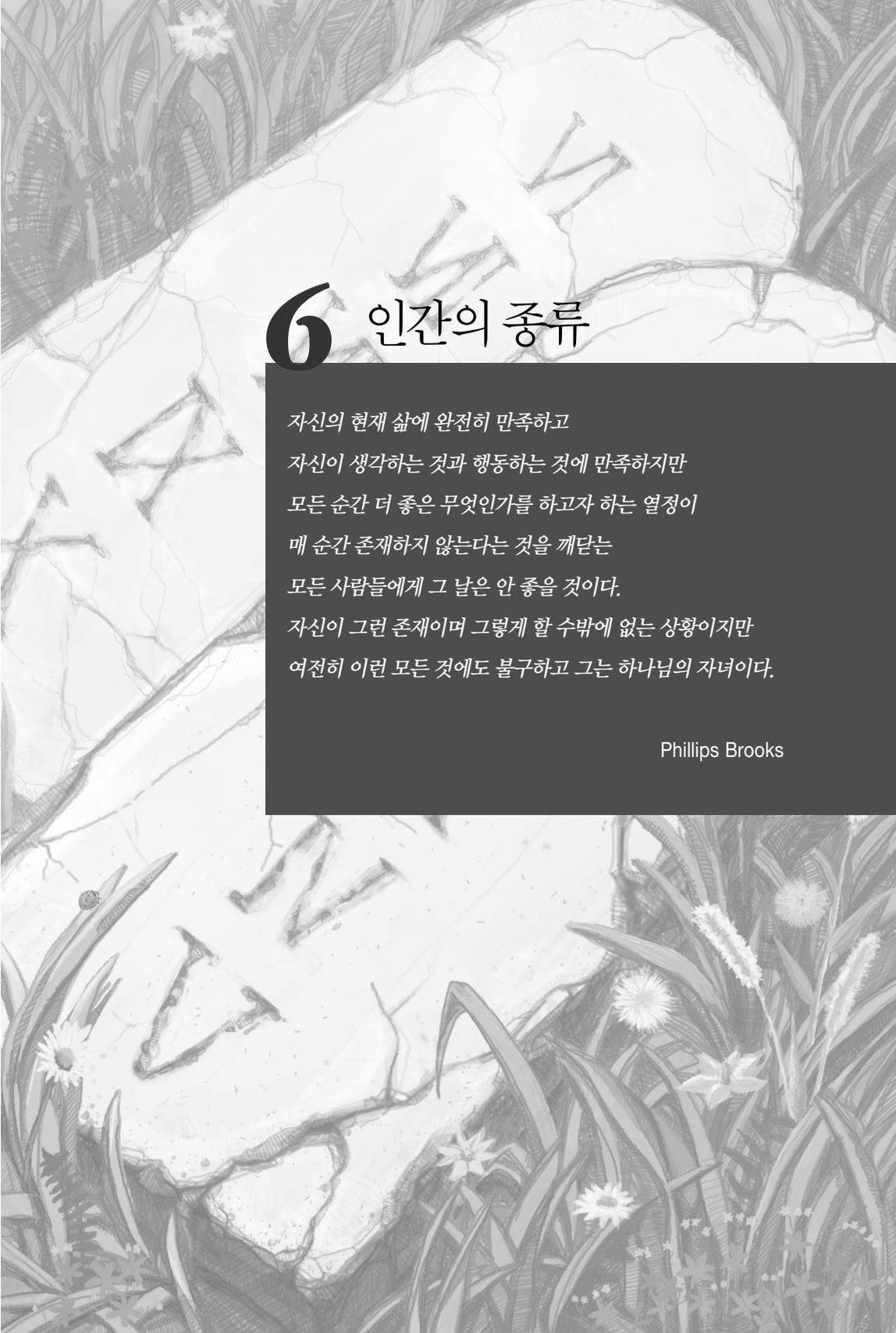
말씀하고 있지 않다. 가라지와 누룩, 씨가 떨어진 세 가지의 나쁜 토양, 큰 나무 가지 위에 거하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은 실패를 의미하고 있다. 마태복음 13:36-50, 25:1-10, 디모데전서 4:1-2, 디모데후서 3:1-9, 4:1-4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

로마서 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만일 모든 민족이 이미 회심했다면 왜 복음전파자가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로마서 11:14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2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는 모든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계시록 5:9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을 회심시키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회심시키신 것이다.



6 인간의 종류

자신의 현재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모든 순간 더 좋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매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은 안 좋을 것이다.
자신이 그런 존재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Phillips Brooks



제6장 인간의 종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세 가지 그룹(유대인-이방인-교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부류의 인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때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칭한다.

고린도후서 4:16에서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이 겉 사람과 속사람의 두 가지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겉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속사람은 새롭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새로운 상태로 보존된다. 옛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새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삶을 소유했다.

갈라디아서 2:20은 믿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십자가 처형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육신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 인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해 영원히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한 인간이 존재한다.

로마서 7:22-25은 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내가 속사람을(육**

신 안에 거하는 거듭난 인간을 의미한다)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거듭난 사람의 육신을 의미한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데도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두 성품이 존재하며 이 둘은 서로 반목하고 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옛 사람)에서 누가 나(새 사람)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새 사람)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옛 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대립이 발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는 새사람이 옛 사람과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생적 습성과 경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확고해졌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정욕과 육신 그리고 생각의 욕구로부터 나온 우리의 습관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 것이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이 계속된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 안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 7:16-18)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람, 존재, 출생, 믿음, 욕구 그리고 두 주인들 가운데 계속되는 전투에 한 사람이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투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는 완성된 작

품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완벽함에 도달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빌 3장).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9) 우리가 만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며 만일 그가 죄를 짓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2) 당신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죄의 속박에 있는 옛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사람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출생은 모두 사실이다.

로마서 8:23을 살펴보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와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고 육

신의 정욕을 따라 걷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2:11에 따르면 사람은 인간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는 구원받았으나(벧전 1:18-19) 자신이 살고 있는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롬 8:21-24). 그는 육신 안에서 신음하며 육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후 4:16-5:8).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은 계속되는 대립의 연속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 존재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썩어질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한다. 이 두 사람의 성향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사역자들이 신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한 사람이 동시에 아담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육신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났고(요3:6) 아담으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이 모든 승리를 향유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요3:5, 요일3:9).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육신적 출생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출생으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가지 부류의 인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두 부류, 즉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

람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또한 두 가지 부류로 더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는 신격이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님으로 계시되었다고 배웠다. 우리는 또한 인류를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분류했다. 따라서 성경이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The Natural Man)”과 “육신에 속한 사람(The Carnal Man)”과 “영에 속한 사람(The Spiritual Man)”으로 나누는 것을 배우게 된다.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의 육신적 출생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즉 죄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3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을 억제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육신적이다.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혹은 힘을 통해서 이를 억제할지도 모른다. 혹은 죄로 인한 처벌과 보복의 두려움을 통해서 억제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올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 본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욕구는 육신의 갈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유다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을 특징짓고 있는 둘째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감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것을 느꼈어.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니?” 라고 질문한다. 또

한 “네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움직인다. 심지어 자신을 영적이거나 종교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한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감각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주님의 인도는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14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하며, 법은 집행되어야 하고, 범죄는 처벌받고, 국가는 군대를 소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 모임, 기업도 정해진 질서와 그것을 집행하는 수단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1) 육신의 정욕이 그를 통제한다.
- (2) 육신적 감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 (3)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거리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는 방법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꺼려할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알고 있으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 진리의 가치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은사주의 스타일의 광적인 예배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예배하려는 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아닌 그들의 감각에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설교자와 기독교 작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인간 지도자의 의견에 기록된 성경말씀 보다 더 권위를 두고, 자신들의 내적 느낌과 인상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의미도 없는 중얼거림이 주님의 권능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정확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위한 것들과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생명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는 로마서 8:5-6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에 대한 열의를 갖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지옥보다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

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5-6)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히 2:14-15),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졌고(롬 6장),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났으나(벧후 1:13-14),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현재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죽었을 때 관심이 있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보다 TV를 좋아하고 예배보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며 단정한 옷보다는 이 세상의 패션을 추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한다. 혼은 구원받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덤 주변을 서성이면서 방황하고 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롬 8:7)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죄와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의심스럽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해보라. 천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포츠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에 운동 경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보라. 천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위해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커졌지만 인간을 높이며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나 성경의 살

아계신 하나님과 반목하는 목사와 신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것은 최종 목적지(하늘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는가? 본성에 속한 사람(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 즉 성경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치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TV 프로그램을 증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술집종사자, 마약거래자, 매춘부 혹은 간음하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이들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 쾌락을 찾으며 그들을 변론하고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증오하고 참지 못하며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3:1-3에서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견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면 편지를 수신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

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 밤새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놀러 다니거나 운동 경기를 시청하며 토요일 전부를 보낸다. 그들은 이단들이나 천주교 신자들과 섞여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싫어한다. 만일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라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자랑하고자 한다. 만일 다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의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질투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끊임없는 투쟁의 원인이 된다. 주일학교에서 어떤 마찰이 존재하는가? 형제들끼리 분쟁이나 교제의 문제가 있는가? 당신이 대화하기 꺼리는 지체가 교회에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순간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축구경기에서 상대방 선수에 대해 참을 수 있는 부분을 청소년 그룹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자신의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 대해 참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지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은밀한 삶 속에서는 허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교제를 끊는 이유로 삼기도 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화를 잘 내며 질투를 한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이다. 자신과 교회 지체들 사이에 구분되는 이런 점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자신이 매우 영적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이유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갈라디아서 6:7-8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둔다는 것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착륙할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착륙한 뒤에 후회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시시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에 씨를 뿌리고 수확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키운다면 그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이라는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죄의 대가는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육신에 큰 상처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수년에 걸쳐 큰 피해를 준다.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를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참

으로 불행할 것이다.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육신적인 생각은 죄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오늘 행동한 결과가 내일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의 이 길이 일 년 혹은 십 년이 지나서 어디로 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

육신적인 사람을 특징짓는 넷째는 그 사람이 일시적인 전투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혼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육신적인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무척 창피해하지만 세상적인 문제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거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3-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에베소서 6:12은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며 살과 피와는 맞붙어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육신적인 사람은 낙태를 금지하는 탄원서에 동의할 수 있으나 자신의 동료들에게 거둬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속한 야구팀이 대회에서 이기도록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육신적인 사람은 만일 자신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설교자와 사역자들(그들의 면전에서 아닐지

라도)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면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죄의 속박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의 혼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적은 국세청, 시장, 정당, 학교, UN, 음식에 있는 중금속, 물속에 떠다니는 해로운 물질들이 아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며 이 세상 삶을 보다 편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적은 사탄의 속임수이며 우리의 가정, 아이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세상 제도이다. 우리의 적은 거짓 종교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잃어버린 혼을 영적인 왕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신약시대 교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것들(물질적인 복들)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의 통제 아래 걷는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사실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의 경우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앞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으며 우리는 또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도 발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13, 15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다.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 문제나 투자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의 사결정과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한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다. 따라서 육신을 내려놓고 옛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된다.

성경이 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답은 구체적인 구절을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를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다른 뚜렷한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1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무관심하지 않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위험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하게 고민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족한 다른 형제를 비난하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수없이 낙담했었기 때문에 낙담한 형제를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혼을 위로하려고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교회 모임이나 전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의 행위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

영에 속한 사람의 셋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로마서 8:6을 다시 살펴보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세상에는 한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조화로운 교제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즐기고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며 기도를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위로가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과의 모임을 늘 고대하며 설교에 늘 관심을 가진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그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섬기거나 나누어 주는 데 특별한 동기부여가 필요

하지 않다.

구원받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그 구원이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동행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제에 복종한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생산하신 열매를 생각해 보자.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자들 가운데 자신의 죄와 방황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랑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진실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나 그 사랑을 감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받기조차 거부하는 자녀가 수없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그 순수하고 완벽한 사랑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기쁨. 우리 구원자께서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의 통제에 자신을 맡긴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화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구속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전쟁을 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오래 참음. 신자의 삶도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경우 대부분 실패한다.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주는 근원에 대해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견디며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부드러움. 우리 주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셨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은 매우 높으나 어느 누구도 파멸시키지 않는다. 주님은 명예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매우 가볍다. 주님께서는 부담을 주시지만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신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며,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성령님께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온유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

선함.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를 통해 우리는 선한 것은 의로움의 결과이며 악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임을 배웠다.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때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으나 결국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의 일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최선의 행위의 결과가 결국에는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를 초래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과 자랑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경우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설교한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명예와 헛된 명성을 추구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혼을 구원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한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이 사역의 뒤에 감추어진 동기가 알려지면 그 끝은 결국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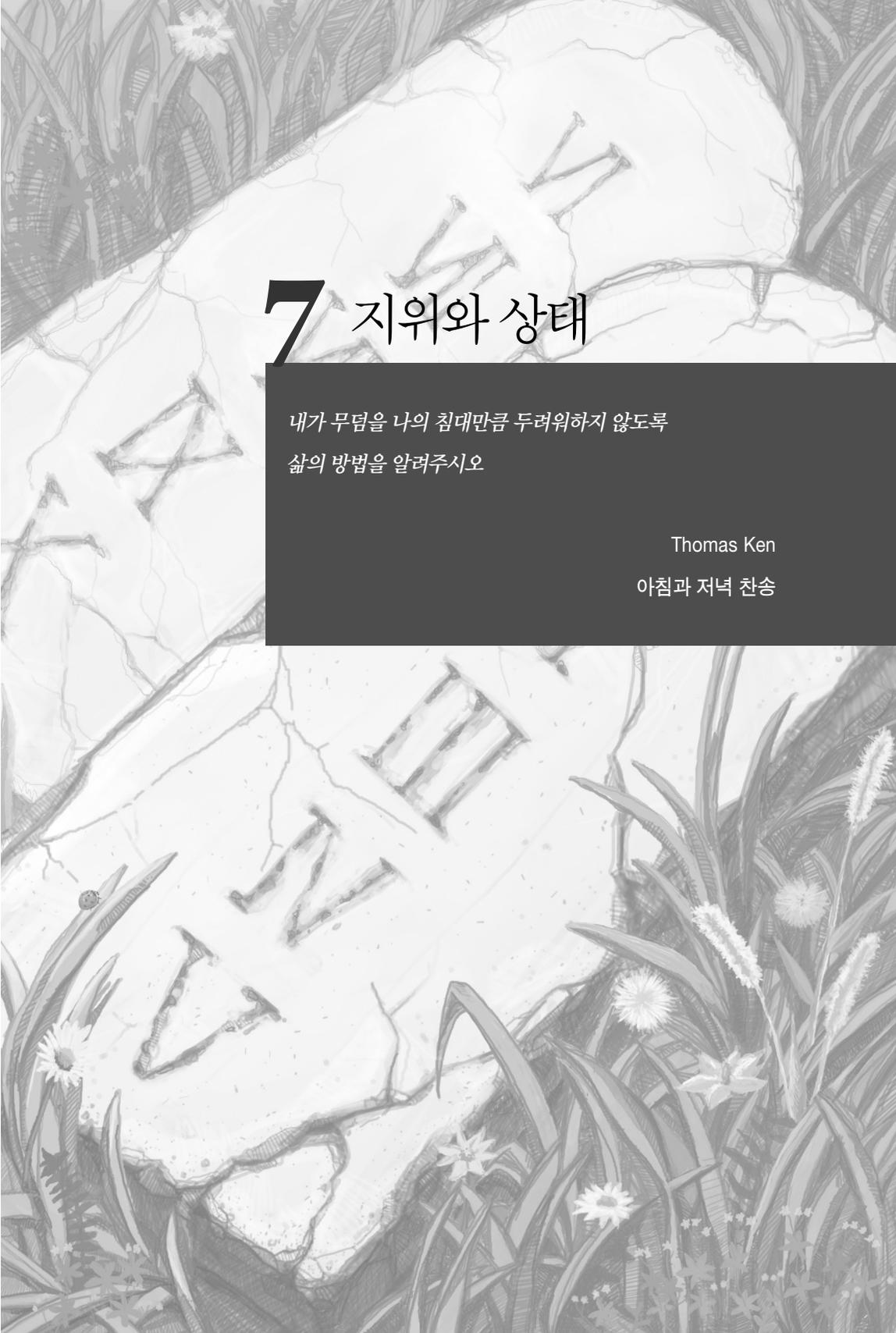
간단히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개인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다.

믿음. 인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육신은 갑작스런 고난에 절망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영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진행되며 모든 것이 맞추어져 주님의 자녀의 선을 위해서 존재할 것임을 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길을 지키며 승리하게 된다.

온유함. 이 능력은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사랑이 넘치는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며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비로움이다.

절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도하는 길로 향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약점을 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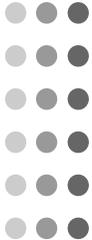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상에 있는 동안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늘로 향하는 인생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이냐에 달려있다.



7 지위와 상태

내가 무덤을 나의 침대만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삶의 방법을 알려주소

Thomas Ken
아침과 저녁 찬송



제7장 지위와 상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옛사람과 새사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지위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의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주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나(고전 1:30, 고후 5:21 등),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롬 6장). 전자를 나의 지위라 하고 후자를 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통해 그랄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 را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가니라.”(창 20:1-2) 이것은 오래된 죄의 한 예이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사 را를 자신의 누이라고 파라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3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간음이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죄인 것이다. 물론 이는 현대적 시각에서 혹은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하나

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동을 통해 그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4-5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방인에 대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을 상기해 보자. 그러나 아비멜렉의 상태는 온전했다. 그가 빛을 보았을 때 그것에 반응한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경우이라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과 율법의 계명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득한 성경 지식은 당신을 의로움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적은 지식일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지식을 가지고 마음을 순수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

남께서는 소돔에게 경고를 주시기 전에는 그 도시를 파멸시키지 않으셨다. 또한 노아의 시대에 있던 홍수 때에도 사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아비멜렉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경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7-8절)

성경 지식이 전혀 없던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얼마나 빨리 복종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결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9절)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은 한 이방인에게 책망 받고 있다.

요나는 거짓 신을 섬기는 뱃사람들에게 책망 받았다. 베드로도 불을 찌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책망 받았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나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당신과 같은 신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

위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10-11절)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현명하게 행동했다. 이방인은 신실했고 선택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간교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은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나 이것이 자신의 범죄를 용인해 주지는 못했다.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로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은 매우 신중한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푼 친절이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천 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12-16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조롱했다. 그는 사라에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눈을 가렸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간음과 거짓말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진리를 계시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주님과 우리를 정죄케 하는 죄의 문제는 바로 지위와 상태의 문제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17-18절) 이 구절 다음에 7절에 있는 다음 말을 붙여보자.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흔들며 아비멜렉과 연합해야만 한다.

누가 그 죄인(아브라함)이 대언자였으며 그 고상한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거짓말쟁이의 기도가 정직한 사람의 삶을 구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위 깊게 살펴 봐야 할 대목이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가족을 속여 자신이 간증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가하려고 시도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위치는 주님의 말씀의 믿음을 빚진 대언자이며 의를 전가 받은 족장이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그 도시에서 아비멜렉을 위해 증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⁰

육신적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옹호하는 데 이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예와 가족과 직장에서 자신의 간증에 손상을 입히지 않음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²⁰ 지위와 상태의 문제는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위가 나온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온전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하였다.

것이다. 한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그 지위에 맞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보시고자 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향하는 영원한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롯의 엄청난 예를 생각해 보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고 동시에 “의로운 혼”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분류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좋은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삶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 유명한 구절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롯의 과거를 읽어보면 우리는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방문했을 때, 롯은 사악한 자들을 “형제”라 부르며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취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했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는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자 사악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곳에서 머뭇거렸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롯의 손을 붙들고 도시 밖으로 이끌고 나갔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후 롯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들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혼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롯의 지위이다. 롯의 이웃들은 소돔의 사악함에 취해있던 한 인간으로 롯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롯의

상태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독자는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동일하게 놓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아내, 자녀들, 이웃과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민수기 23장에 가서 고용된 예언자인 발람을 살펴보자. 그는 충분한 급여만 제공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설교할 것이다. 세상적인 왕인 발람은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된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속되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적인 갈라짐을 통해 죽음의 장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생활에서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써 그 광야에서 죽었다.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악했다.

발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회중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모습은 장관이었다. 매일 아침 이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줍고 있었다. 매일 오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간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 거짓 대언자는 아래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을 열어 그 백성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였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 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민 23:21-23)

놀랍지 않은가!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불의함과 타락함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지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이다. 이스라엘의 지위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들은 구속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며 주님의 선택 받은 민족이다. 이 민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지위인 것이다. 동시에 죄는 어떤 민족이든 파멸시키며 그 죄로 인해 주님과과의 교제가 막히게 된다. 이것은 상태에 관한 것이다.

독자들은 구약을 통해 이 진리들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 삼손, 엘리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놀라운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도 보게 된다.

구약성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타락하고 더러운 제사장과 다루기 힘든 민족을 상징한다. 스가랴 3:1-4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것은 명백히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상태이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과거시제) 이제 의복을 바꾸어 네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그 죄악이 제거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서 불 속에서 나온 한 나뭇가지로 서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더러움과 죄악에 속한 그를 보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신다. 여호수아의 상태는 더러웠으나 그의 지위는 깨끗했다. 그의 상태는 사탄의 고소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슬픈 소식을 보냈다.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데마와 같은 길을 따라갔는가! 수많은 주님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닌 육신에 따라 살고 있다. 히브리서 13:5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상태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상태는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가 방황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5-6을 보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나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있는 나의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내가 하늘의 집으로 가는 순간까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4:29-3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나의 상태는 심하게 변할 수 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자신을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전달 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해가 되는 증오의 말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령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30절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나의 상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만 나의 지위는 이미 성령님께서 봉인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에 매번 실패할지 모르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임무에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견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롬 6:2-6)

같은 로마서 6장에서 같은 독자에게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죄의 삶은 사망이라.**”(롬 6:23) 이 구절은 종종 불신자들을 다루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실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수신자가 아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대한 경고이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개인의 지위에 대한 위대한 구절이 이어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 6:23)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선물은 현재시제로 영원하다.

에베소서 2:5-6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주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하늘의 영광 중에 있는 자신의 처소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래의 확실성은 요한일서 3:1-2에 제시되어 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거듭난 성도들이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명백히 볼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각 개인의 현재 상태이다. 이것은 매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뀌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며 그분처럼 될 것은 확실하다.

빌립보서 3:1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간증이다.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0:10, 14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들의 지위와 비교해 보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설이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3-5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 받고 있느니라.”

나의 상태는 가난하며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의 지위는 유업을 가지고 있다. 나의 상태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나의 상태는 생각과 행위가 타락해 있으나 나의 지위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정결하게 된다. 현재 이 모습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나 그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되었느니라.”(벧전 1:5)

갈라디아서 2:20을 살펴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지위).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지위).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상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지위)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예수님의 믿음은

나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구원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4:13-15을 살펴보자.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도달해서 “나를 찬양하라. 내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현재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 4:16)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볼 수 있다. 죄로 망가진 몸을 입은 채로 수년간을 헤매며 구원을 위해 주님께 다가간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롭게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 육신은 계속해서 죽음의 문으로 향하고 있으나 혼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가 육신을 통해 이런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한 사역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로마서 8:31-35을 살펴보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여기에 열거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서 일어난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혼은 결코 별거벗게 되거나 칼로 찢리지 않는다. 밖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영적 전쟁에서는 휴전이 없다) 주를 위해 죽임(육신) 당하며 도살당할(육신적 죽음)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내적인 사람의 삶은 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롬 8:36-37)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정복자다. 그의 상태는 고문을 받고 있으나 그의 지위는 영광스럽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 8:38-39) 육신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도 혼을 파멸시키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6:7-8은 경고이자 약속이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 내가 본성을 따라 살지 혹은

새로운 생명에 따라 살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의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오로지 순간만을 생각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수확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결정한다.

마태복음 16:13-23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이것은 베드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주님을 정확히 정의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보다 더 나은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같은 사람이 같은 날 행한 사건이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17절)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23절)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의 지위는 복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적이 수없이 많지 않았던가?

골로새서 1:12-13을 보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신분으로 만드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진저 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나는 이미 주님의 왕국 안에 있다. 이것이 나의 지위이다.

동일한 대상에게 골로새서 3:8-10은 말씀하고 있다. “이제는(현재시제)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녀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골로새서 1:12-13과 3:8-10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런 대조는 로마서 6:6과 골로새서 3:5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나의 지위에 관해서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나의 상태에 관

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지체들을 죽여야만 한다. 이것은 엄청난 충돌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14을 보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다음의 내용을 덧붙이셨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5:8과 일치한다. 바울과 마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너희가 한 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동일한 진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5-6에서 볼 수 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지위에 대한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나의 지위가 5절에 나타나 있지만 나의 실제 삶은 이 본질과 동일하게 살 수 있고 혹은 나의 지위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 나는 빛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눈을 가리고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처럼 잠자리 갈 수 있다.

디모데후서 1:9과 빌립보서 2:12을 비교해 보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일하여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통

해서 이루신 결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히브리서 10:10과 데살로니가전서 5:22-23을 비교해 보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것은 위대한 소식이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거룩히 구별되었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한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이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히 보존되도록 기도해 주신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3:15과 히브리서 6:1-2을 비교해 보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지위)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성령님께서서는 완전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고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와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상태에 대해 성경이 모순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처한 이런 모순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요한일서 2:6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지위)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상태) 할지니라.”**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민 11:1)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민 11:4)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민 11:33)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민 12:1)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시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민 12:9-10)

정탐꾼은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 있던 큰 거인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민 14:1-2)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민 14:10-12)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민 15장).

고라는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땅을 여시고 그들 모두는 지옥으로 삼켜졌다(민 16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선택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민 17장).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민 19장).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주께서 불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민 21:5-6)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인간의 역사인가!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곰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rod. 누가 능히 야곰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매.”(민 23:7-10)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발람은 다른 모략을 시도한다.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분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민 23:18-21)

지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변덕스러운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야곰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타락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지위를 선포하게 하셨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의 의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이루신 것은 영원하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이 복된 선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역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제에 복종한 사람들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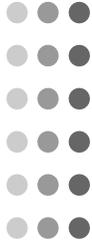
8 구약 시대의 구원

당신의 자리에 굳게 서라.
포탄이 오기 전까지 발사하지 말라.
만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 시작하라!

John Parker

To his minute men at Lexington

1775년 4월 19일



제8장 구약 시대의 구원

이 주제의 목적

저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편지나 전화문의의 받고 있다. 성경집회나 부흥집회를 인도하면서 종종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구약시대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왜일까?

잠시 생각해 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00년 동안 한 사람만이 제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싶어 했던 그 어떤 사람도 지난 20세기 동안 쉬지 않고 이 문제를 고민했다. 왜 이 문제가 이토록 주목을 받아 왔을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자만 때문이다.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면 이 문제의 퍼즐을 풀고자 한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름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잠13:10) 신약 교회에는 지식숭배와 건전한 교리를 혼동하고 형제들과 싸우는 것과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탄생의 교리를 믿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간과하고 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교만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만 때문에 자신의 성경지식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누가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

도인”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성경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거듭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 성경을 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수많은 설교자와 교회들이 킹제임스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 음악 그리고 종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만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구약 시대의 구원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이슈화 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그들이 새국제번역본(NIV)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비난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 선택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그 즉시 참되고 정직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 해도 성경이 두 가지 구원 방법(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야 믿음이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정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

1. 질문을 한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완벽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다.
2. 질문을 한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근거로 교제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믿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만일 당신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형제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3. 질문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자 한다.

어떤 두 사람이 성경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삼위일체, 처녀 탄생, 신약 구원, 킹제임스성경, 재림, 휴거 등의 문제에서는 정확히 일치하지만 나 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 비난하는 엄청난 상황을 본 적이 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얹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잠 17:14)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잠 18:6)

교회 구성원들이 설교자의 잘못된 인도를 통해 자신의 형제들을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만 한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잠 22:10).

이 문제에 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신자이며 복음을 전파하고 혼을 구원하는 진실된 사람임을 나는 명백히 하고 싶다.

빌립보서 1:16-17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저들은 내가 결박 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어떤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다른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

고 싸우기 좋아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나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나의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나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함과 존중함으로 대하고자 한다. 만일 당신이 이 문제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높이 지만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구약시대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구약시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존재한다. 침례교회와 다른 근본주의 그룹에서 역사적으로 취해왔던 입장은 “갈보리 십자가사건 이전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갈보리 이후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장은 다소 변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첫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계 19:10) 성경 전체 예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 첫째인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 분께서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복음 9:28-31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눅 24:25-27)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어디서도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으셨다.

따라서 구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10-12를 보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이 두 가지 모두 예언서의 주제였던 것이다.

요한복음 5:39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은 다름

아닌 구약성경이다.

고린도전서 15:3-4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이 인용한 성경기록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디모데후서 3:15에서 볼 수 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기록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은 디모데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십자가를 미리 내다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언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그들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한 구절은 명백하다. 이 사람들은 구원자의 고통을 통한 구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에게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존재했다.

만일 십자가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보낸 삼 년 반 동안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예까지 들어 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예

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반응했다. 그들은 확실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못했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확실히 말씀하였으나 베드로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마 16:21-22) 이것을 보고 누가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9:43-45을 보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심히 놀라거늘 그들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명백하지 않은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의 무덤 앞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24:1-9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오래된 이론을 거부해야만 한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예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는 단순한 교리를 받아들였다.

30초만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주장의 허구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다음의 두 가지 주장들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1.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역사상 최소 1,500년 동안 구원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2.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 역사상 최소 4,000년 동안 유대인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엄격하게 규정된 하나의 민족적 언약인 것이 분명하다. 신명기 4:6-8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9:3-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오십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님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통해 합리적인 생각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십자가 이전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선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구약시대 구원을 결정하는 두 가지 특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는지를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에 대한 신약성경의 해석을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율법의 효율성에 대해 매우 확실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첫째, 율법은 죄로부터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확실히 단언하고 있다. 로마서 3:20-28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즉, 율법과 대언자 모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됨이 불가능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십시오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명백해질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접근하게 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심을 통해 다루셨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과거의 죄들은 사면될 수 없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된다(계 5:12))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데 성령님과 사도들과 일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도행전 13:38-39은 동일한 구절이다. 바울은 과거 시대를 고찰하면서 율법아래 있던 유대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행 13:17-25)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경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성경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바울은 인간이 “현재”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그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연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선조들(17절), 이집트 속박 시절(17절),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18절), 여호수아의 날들(18절) 그리고 재판관 시절(20절), 사울(21절), 다윗(22절) 그리고 침례인 요한(25절)까지 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언급하였으며 그들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7:18-19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그리스도 앞서 있던 율법)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만일 율법이 수천 년 동안 구원의 수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회 시대 혹은 유대민족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를 의미하는 현재 시제가 아니다. 이것은 과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율법 아래서 완전하지 못했다는 과거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진리가 히브리서 10:1-4에서 인상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율법은(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음)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결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성경 교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희생제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학생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로는 어떤 사람의 죄도 제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만일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심각한 농담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셋째, 성경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16-21은 주님의 말씀가운데 핵심교리가 되는 구절이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은 확고하다. 그것은 물릴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성

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헛된 수고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잠시 생각해 보자. 만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21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했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갈 2:16)

넷째, 율법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으며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그에게 의를 전가해 줄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율법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갈라디아서 3:2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명백히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나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나 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율법에 대한 앞의 네 가지 진리에서 본다면 이 다섯째 내용은 그 자체가 매우 명확하다.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줄 수 없다. 히브리서 9:6-10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매(율법이라 희생제물) 제사장들이(율법으로 기름부음 받은)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율법에 규정된)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한 날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규정한 제물을 헌물로 드리고 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 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경배를 보이시며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나 여전히 너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과거시제)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근거가 있다고 잠시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 구원의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한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혹은 항상 율법의 일정부분을 지켜야만 하는가? 혹은 주어진 율법 가운데 85%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야고보서 2:10-11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없을 것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복된 교리를 믿는 한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인다면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죄를 짓는 결과로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를 강요 받게 된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살인이나 유괴와 같은 큰 범죄만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

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교리를 망각하고 예수님 죽음 이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일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당신은 율법을 반드시 어기게 되며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더라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모임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행15:5-6,10)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내용을 우리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따라서 신약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구약 율법에 대해 배운 것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
2. 율법은 죄를 제거 할 수 없고 순종하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3. 율법은 의로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율법은 생명을 주지 않는다.
5.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 첫째 목적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개인적으로) 혹은 땅의 손실(민족적으로)을 의미하게 됨을 우리

는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보상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건강과 번영을 소유한 현 세상에서의 축복된 삶(개인적으로)이며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취하는 것이다(민족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장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죄 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성경구절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주님께로부터 왜 등을 돌렸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완성해줄 분이었으며 그들은 그러한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논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누가복음에 이르는 모든 구절들을 인용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자. 당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의 얘기를 기억할 것이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에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했던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자. 누가복음 24:15-21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의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

나?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들이 믿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들은 개인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민족적으로 적으로부터 구속 받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따라서 율법을 이해하고 메시야가 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과 보존을 가르쳤다.

율법의 둘째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구원의 올바른 방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양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무수히 많은 인간 정부의 법령을 통해서 이를 명백히 하였다. 율법은 구체적으로 죄를 규정하였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항상 희미하게나마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롬 7:7-10)

따라서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들은 현재 인간의 마음 상태를 계시해 주고 있다. 이 계시는 죽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부여해 주고 있다.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앞의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나는 죽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노라.” 그러나 그 구절은 걷고, 말하며 숨 쉬는 한 인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희생제물을 통해 특정한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받은 다음날 인간은 다시 죄를 짓는다. 결국 인간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친다 해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인간을 다시 “죽이는” 것이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었으나 율법은 죄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율법은 장갑 안에 있는 주먹과 같은, 그리고 활에 꽂혀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6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자신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자 죄는 더욱 넘치고, 강해졌으며 더욱 명확해졌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의 방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 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간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 라.”(갈 3:21-24)

모든 희생제물과 헌물과 계명과 스스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뿐이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롬3:20)

따라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만일 천주교인이나 안식교인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없음을 보여 주는 앞의 인용 구절들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시대 구원의 주제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독자 가운데 몇 사람은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망각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이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

디모데전서 1:5-11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명령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기서 고려하는 것은 명령들의 종착역, 즉 그것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장소이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따라서 목적은 순수함과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나 혹은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따라서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그것의 결과를 다루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친구여, 이 구절들을 보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는 은혜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다른 하나는 선한 행위를 통한 보상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과 율법은 모두 인간이 가련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구약시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갖고 죽었으므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다가 죽은 가장 최선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 보자.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1.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해야만 한다(6절).

2.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13절).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요약하고 있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율법 이전에 살다 죽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요셉

(2) 율법 아래서 살았던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3) 율법 밖에서 살았던 라합

“이 사람들은 다…좋은 평판을 얻었다.”(39절)

4.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6절).

(1) 노아 술 취한 자

(2)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3) 이삭 거짓말쟁이

(4) 모세 살인자

(5) 라합 창녀

(6) 삼손 간음한 자

(7) 다윗 간음한 자이며 살인자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죽은 후 하늘나라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

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히 11:13)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상관이 있으며 그 약속들의 성취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39-40절을 보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는 약속이 단수로, 즉 하나의 약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들이 비록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포함한 더 좋은 소망이 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서 죽었음을 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후에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는 못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눅 16:22) 그는 안식을 취했으나(25절) 주님의 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가 자기 친척에게 위대한 왕 다윗과 위대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구약시대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다윗이 죽은 후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사도행전 2:33-35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이 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이러한 선언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확실한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행 13:34).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죽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가? 주님과 같이 있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품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절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11번이나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 초기로부터 믿는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욥 19:25-27)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에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구속자
2. 그때도 살아 계셨음
3.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분
4. 자신(욥)은 죽고
5. 벌레가 살을 파먹지만
6.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져서
7. 육체 안에서(육체를 입고)
8.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은 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하늘에 이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히 9:8)

따라서 욥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믿음 가운데 죽었으나(히 11장), 그는 소망의 완벽한 성취를 받을 수는 없었다. 나사로처럼 그들은 “소망 중에 갇힌 자들”이라 불렸고(슌 9:12)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갇힌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 받게 된 것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시 68:18)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엡 4:8)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갈보리 이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흘림의 사역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기 전까지 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만 한다. 율법을 지키거나 다른 선한 행위를 통해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은 매우 명백하다.

구약시대 구원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예

이제까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살펴 봤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를 자세히 고찰해 볼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울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세심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첫째 사람인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둘째 사람인 다윗은 율법 아래서 그리고 셋째 사람인 바울은 율법 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롬 4:1-2)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명백하다. 그 의로움은 구원의 증거가 아님을 우리는 아래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롬 4: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가된 의를 말하고 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4-5)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예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 때문이다)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었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롬 4:9-11) 따라서 아브라함의 예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행함이 없어도 그들에게 의가 인정되었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롬 4:12-16) 따라서 그가 나중에 받은 약속들은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한 사람에게 부여된 복인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14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15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정죄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이(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16절)

율법 이전에 혹은 율법 아래서 한 인간이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그 의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다.

갈라디아서 3:6-10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아브라

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율법이 없던 이방인들)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바울은 복음을 알았고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복음화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8-10절)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주만 할 뿐이다. 주님도 이 사실을 거듭 말씀하시기에 나도 거듭 말하는 것이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10절) 도덕률(moral law)과 민법(civil law) 그리고 의식법(ceremonial law)에 대한 생각들은 매우 비성경적인 제안들이다. 모든 인간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저주받는 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갈 3:11) 이 한 문장이 구원에 대한 율법의 역할을 명백히 규명해 준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

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갈 3:12-17)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성령님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둘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었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율법에서 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갈 3:18)

따라서 의를 전가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었다. 의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일부였고 그분 안에서 확정된 것이었다. 율법은 그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 언약을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없었다.

갈라디아서 4:21-31을 통해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유니라. (성경에 있는 유일한 풍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따라서 율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속박한다.

“기록된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갈 4:21-31)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다윗

이제 다윗왕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살펴 보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 곰 그리고 거인과 싸웠던 다윗의 무용담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사울의 위협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밋세바와 마주치는 참담한 사건에 이른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할 시간이 없으므로 요약해서 말하면,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손으로 돌 판에 새긴 율법에는 다윗이 저지른 이 두 가지 죄를 용서해 줄 어떤 제물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간음과 살인에 대한 형벌은 오직 죽음뿐이다. 율법 아래서는 이 죄

들을 용서해 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유명한 회개 기도를 살펴보자.

“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에(명령이나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랑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십자가 이전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했다면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통해 용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율부짓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 주소서.”
(1절) 다윗은 하나님께 오로지 은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거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2절) 다윗은 어떤 희생제물도 바치지 않았으며 속죄하기 위해 율법의 어떤 조항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어떤 선행과는 관계없이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3절) 다윗은 마음의 통한을 가지고 죄에 대해 자백하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또한 의로움의 문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 문맥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신 것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5-6절) 다윗의 죄는 그를 압박했고 율법은 그 역할을 했다. 다윗왕은 자신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에 죄로 가득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만 바라보게 되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7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도움 없이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담대히 율법에 기록된 어떤 희생제물의 도움 없이 정결케 됨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며,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8-12절)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13절) 율법 아래 있던 한 인간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구원을 구하고 있으며, 그런 구원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 회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오 하나님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14절)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파악했을 것이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구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

오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15-16절) 여러 분은 명백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던 이 사람은 그 어떤 희생제물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이나 헌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소망에 자신의 혼을 맡기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어떤 희생제물도 기꺼이 드리하고자 했으나 그 어떤 희생제물도 자신의 죄를 제거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순한 믿음에 두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한 가지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하게 죄를 제거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통회하고 애통회하는 마음이며, 자비로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제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18-19절)

사랑하는 독자여,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말라. 율법에서 규정한 희생제물은 이미(already) 죄사함을 위해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른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헌금도 하고, 성가대와 기타 교회봉사에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행위가 자신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어둡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헌금도 하고 성가대에서 봉사

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전자와 후자 중 후자의 사람과 그의 헌물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안식일에 성전으로 오는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양과 음식헌물에 쓸 재료를 가지고 왔다. 그는 양과 자신이 제공하는 음식헌물이 자신의 마음에 다소의 평안함을 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의 미래는 어둡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과 음식헌물에 쓸 재료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 사람과 그의 헌물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주님께서서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용서를 해주셨는가?

다윗은 시편 32:1-5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다윗의 간음에 대한 성령님의 반응이 로마서 4:5-8에서 발견된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구약과 신약 모두 십자가 사건 이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가한 의의 문제이며,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즉 행위의 결과가 아닌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죽어서 곧 바로 하늘에 가지는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요 10:1)

따라서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런 이유로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히브리서 10:1-10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

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 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 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 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 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의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지는 것을 요구했 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위대한 용서도 예수님의 몸이 희생물로 드러지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그런 축복이 충만하게 향유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이것이다. 율법은 구원의 문제가 은혜 와 공훈의 문제이며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미래에 있을 한 날을 기다려 야 한다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출애굽기 34:4-7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모세 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고 아침에 일 짝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 판 두 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당신은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공훈이 많고 은혜롭고 (이것은 율 법과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나온 말씀이다)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공훈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에 기초해서 죄가 용서된다는 약속을 가 지게 된다)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 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나사르가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세계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었으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기 전에는 죄인들의 기록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지불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희생제물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단 한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들은 그들이 소망했던 도시로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던 다른 두 사람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 못하나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훈을 찬송하고자 한다.

첫째 경우는 누가복음 18:10-14에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공훈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올라갔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공훈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복은 율법 아래서 살았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사람은 명백히 율법의 행위 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거짓된 방법에 맞선 한 사람이 있다. 어떤 종교의식이 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만다. 이 사람은 어떤 희생제물도 바치지 않았고, 속죄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도,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교회 구성원이 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죄를 지어 죽어가고 있었으며 해가 지기 전에 죽을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2-43)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밖에는 부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가 공부했던 세대적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며, 예수님 부활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낙원에 이르는 약속이 부여된 것이다.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 아닌가!

다소사람 사울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구체적으로 다소 사람 사울의 매우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구원 간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을 위해 그가 회심하기 전 상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빌립보서 3:4-5에서 우리는 그의 상태를 볼 수 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 하리니” 성령님께서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그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을

신뢰하고 지켰던 바울을 선택해서 사용하셨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26:4-5를 통해서 그의 삶을 더 살펴 볼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으며 그때부터 내가 살아 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빌 3:6) 이런 행위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신 13장 참고)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 3:6-9)

젊은 시절부터 율법에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장 엄격한 종파에 속하여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해서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¹ 그의 주장은 세 가지 종류의 의로움을 언급하고 있

²¹ 흠이 없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흠이 없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밖으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인 요한의 부모도 이런 높은 수준의 도달한 사람이었다(눅1:6).

다. 첫째, 그가 집착하고 있는 율법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이다. 둘째, 그가 속했던 율법의 의로움(즉, 한 인간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다소 사람 사울의 경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요구했던 의로움의 처음 두 가지 형태를 평가할 때, 전자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 모두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러한 논리는 로마서 10:1-4에서 정확히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경우처럼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의로움이 서로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한 인간을 자신의 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결국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된다.²²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을 정리해 보자.

1. 율법이 주어지기 수세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었다.

²² 여기서 독자들은 히스기야, 아합 그리고 룻의 경우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2. 율법 이후 인간은 자신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성경에서 희생제물 없이 용서받은 사람과 제물을 바쳤으나 저주받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명백하다.
3. 신약시대 서신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율법의 목적을 기술했고 있는데, 율법은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지는 않았으나 하늘나라로 직접 가지는 못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소중한 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희생제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거부당한 사람들

여기서는 율법에서 규정한 제물을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헌물과 사람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

이사야 1:10-15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 소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첫째 헌물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벨은 피의 헌물을 드렸고 가인은 채소를 가져왔으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다고 언급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창 4:4-5) 아벨의 마음이 올바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아 들이셨으나 가인의 마음은 올바르지 못했고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히브리서 11:4에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다음의 말씀들도 비교해 보자.

“나는 공흠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호 6:6)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

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렘 6:19-20)

“벧엘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죄를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암 4:4-6)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낫선 것으로 여겼도다.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거기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호 8:12-14)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

다윗이 알았던 진리를 대언자 미가도 알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세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아니냐?”(미 6:6-8)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십자가 사건 이전의 한 사람을 살펴보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빛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했던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12:28-34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며,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을 다 합친 것보다 나은 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한 설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전에 구원받았거나 자신들의 죄가 사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관한 몇 개의 성경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

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눅 7:47-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눅 18:42-43)

“보라,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이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나?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마 9:2-6)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생했던 모든 병과 질병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대한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모든 계명들에 순종한다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출 15:26, 신 7:15). 동일한 논리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다는 경고를 그들은 받았던 것이다(신 28:58-60). 앞의 두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주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은 개인들을 볼 수 있다.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다. 이 간단한 성경구절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골칫거리로 존재해 왔다.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만일 당신이 이 구절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면, 그들은 당신의 지성과 명성을 공격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나를 그들은 강단에서 내쫓고, 나를 멀리하라고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심지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나를 하여금 “내가 어리석었고 성경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어쩌면 내가 어리석은 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나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몇 가지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야고보서 2:17-24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18절) 이에 대해서 성경 기록자는 말하지 말고 그것을 네게 보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19-2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15장에서 의로움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여주는 문제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네가 보거니와 (나에게 보여 달라)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완벽하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믿음으로 전가된 의로움, 행함으로 인한 친구)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나에게 보여 달라)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22-24절)

나는 여기서 사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이 관점을 어떻게 증명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16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의롭게 되셨다. 즉, 그분의 선한 사역을 살펴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온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 5:9)**

추가적으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위대한 기도로 잠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킨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시 51:4)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가복음 7:29의 말씀을 숙고해 보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주장을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전개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보길 바란다. 눈에 보이는 의로움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로운 상태셨으나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엄밀히 말하면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추측

연구를 마치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한 가지 개인적인 추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이것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치리자는 다소의 사울이었을까?

젊은 치리자에 대한 기록과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고 검토해 보자. 누가복음 18:18-24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치리자였다(요 3:1, 행 4:8).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행 23:6, 26:5).

“선한 선생님이여” 좋은 매너는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행 24:3, 26:25). 그가 좋은 매너를 보이지 않은 적이 한번 있었지만 그는 즉시 사과했

다(행 23:5).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으며 그것을 얻고자 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행 26:6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치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네가...명령들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의 스승은 “율법 박사”였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행 22:3, 5:34, 26:5) 그러므로 바울은 명령을 알고 있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서는 이 젊은 치리자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의 간증을 받아들이신 듯 하다.

바울은 사도행전 26:4-5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

았다 하리이다.”

빌립보서 3:4-6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인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명령대로 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청년기부터 아는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 증언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심지어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사역자로 삼으셨다. 디모데전서 1:1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구원받기 전)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구원받은 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은 모두 지켰다. 이 젊은 치리자가 자신이 다른 계명들, 즉 인간에 대한 계명들도 다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입증방법은 바로 재산을 모두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재산을 모두 팔아 주고 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사람은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근심하면서 갔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만 그런 식으로 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바울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It is hard).”**(행 9:5) 그는 무엇인가와 투쟁하고 있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젊은 치리자에 대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자.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How hardly)”**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켰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가지를 위해 모든 것을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빌 3:7-10)

젊은 치리자가 바울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 젊은 치리자가 나중에 구원받게 되었다면 빌립보서 3:7-10과 같은 간증을 했을 것이다.

젊은 치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대답하셨다.

후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

고 물었을 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라고 대답했다(행 16:30-31).

만일 바울이 그 젊은 치리자였다면 그는 예수님께 확실히 배운 셈이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 제 목 | 저 자 | 면수 | 가격 |
|----|------------------------------|-----------------|-----|-------|
| 1 | 고통과 함께 하는 삶 | 사무엘 김 | 104 | 3500 |
| 2 | 내일은 늦으리 | 홍성율 | 56 | 2000 |
| 3 | 하나님의 경고 | 홍성율 | 116 | 4000 |
| 4 | 성령의 열매 | James W. Knox | 352 | 12000 |
| 5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L.E. 맥스웰 | 240 | 8000 |
| 6 | 성장을 위한 첫 걸음 | Linton M. Smith | 464 | 15000 |
| 7 | 일곱 교회 | James W. Knox | 44 | 1000 |
| 8 | 확실한 기초 | James W. Knox | 264 | 8000 |
| 9 | 행복한 그리스도인 | 홍성율 | 40 | 1000 |
| 10 | 성령 침례 | James W. Knox | 28 | 1000 |
| 11 | 깊이 생각하라 | 홍성율 | 28 | 1000 |
| 12 |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 James W. Knox | 220 | 8000 |
| 13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James W. Knox | 40 | 1000 |
| 14 | 신유와 적그리스도 | James W. Knox | 40 | 1000 |
| 15 | 성경 연구 방법 | James W. Knox | 224 | 8000 |
| 16 | 교회의 휴거 | Linton M. Smith | 48 | 1000 |
| 17 |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8 |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9 |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 James W. Knox | 28 | 1000 |
| 20 | 큰 흰 왕좌 심판 | James W. Knox | 28 | 1000 |
| 21 | 기독교의 본질 | James W. Knox | 96 | 1000 |
| 22 | 설교의 준비와 전달 | James W. Knox | 88 | 4000 |
| 23 | 청지기 | James W. Knox | 40 | 1000 |
| 24 | 하늘나라와 지옥 | James W. Knox | 224 | 8000 |
| 25 | 하나님의 뜻 | James W. Knox | 40 | 1000 |
| 26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 James W. Knox | 28 | 1000 |
| 27 |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 James L. Melton | 28 | 1000 |
| 28 | 성경과 술 | James W. Knox | 28 | 1000 |
| 29 | 쉬운 복음 쉬운 전도 | James W. Knox | 144 | 5000 |
| 30 |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 James W. Knox | 64 | 1000 |

| | 제 목 | 저 자 | 면수 | 가격 |
|----|----------------------|------------------|-----|-------|
| 31 | 거룩한 여인 | James W. Knox | 60 | 1000 |
| 32 | 다시 태어났습니까? | H.E.M. | 32 | 1000 |
| 33 | 교회에 관한 교리 | James W. Knox | 432 | 15000 |
| 34 |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 Jeffrey Tibbetts | 96 | 4000 |
| 35 |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 이우진 | 40 | 1000 |
| 36 | 교회와 대환난 | James W. Knox | 108 | 4000 |
| 37 |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 James W. Knox | 36 | 1000 |
| 38 | 세대주의 재고찰 | James W. Knox | 324 | 12000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 | 제 목 | 저 자 | 면수 | 가격 |
|---|--------------------------|----------------|-----|------|
| 1 |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 Timothy Morton | 64 | 2800 |
| 2 |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 이우진 | 128 | 5000 |
| 3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 Paul E. Heaton | 88 | 4000 |
| 4 | 성경을 찾아보라 | 이우진 | 80 | 3000 |
| 5 | 영원을 준비하는 삶 | 이우진 | 24 | 1000 |
| 6 | 예수님 나의 예수님 | 이우진 | 48 | 1000 |
| 7 | 칼빈주의 비평 | James W. Knox | 96 | 4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15종과 소책자 23종 등 38종의 도서를 총 7만 7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한 권 당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2년 1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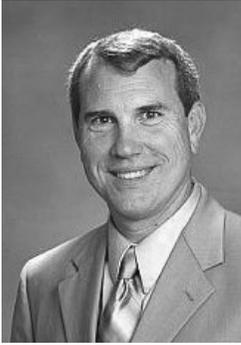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조동훈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現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